

엽기 로봇 김말자

## 목차

말자와의 조우  
우리 불 켜고 할까?  
집 꼬라지 하고는  
오달수와 유해진  
미션 임파서블  
코브라 트위스트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박대기 기자  
마요미는 날씬해  
포스와 함께하길!  
엔딩 자막

말자와의 조우

지금으로부터 대충 100년 후.

오동추는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왜냐구? 좋아서.

그는 동이 트자마자, 콧노래를 한껏 부르며 이 동네 유일한 세라믹 알칼리 탄산 유황 온천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목였던 때를 구석구석 말끔히 벗겼다. 집에 와서도 꽃단장하느라 오두방정을 떨었다.

화장대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도대체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싸구려 보이 드샤넬 포티파잉 젤 모이스처라이저를 온몸에 처바르고, 짝퉁 아쿠아 디 지오 움므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겨드랑이와 생식기, 가슴, 코, 배꼽 등, 아포크린샘이 있는 부위에 덕지덕지 발랐다. 코털도 눈물 찢끔찢끔 흘리며 정성껏 핀셋으로, 거울을 쾀나보며,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고, 양치질도 아래위로 온 신경을 집중하여 각각 5분씩 구석구석 닦으며, 거의 화석화된 프로그 제거에 용을 썼다.

마침내 재탄생한 듯, 아기 피부처럼 뽀얀 살결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서른아홉의 모태솔로 노총각 오동추.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별거벗은 모습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BYC 속옷 세트와 꼼데가르송 실크 와이셔츠, 브리오니 정장 슈트를 장롱에서 꺼내 낡은 침대에 다소곳이 펼쳐 놓았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동안 감격에 겨운 듯, 어깨를 들썩이며 닭동 같은 눈물을 흘렸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잘나갔던 게 틀림없는 조상이 남긴, 장인의 고결한 끈기와 인내가 알알이 뻗어 고급 정장.

한때 한국 의료계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막강한 오씨 가문이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대를 거듭할수록 집안은 쪼그라들기만 하였다. 그러다 아버지 대에서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다. 그러니 일가친척뿐만 아니라 가족도 제각각 뿔뿔이 흩어졌다. 오동추는 이제 고아와 다름없는 신세였다. 늘 외로움이 그의 곁을 귀신처럼 지켰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된 거야! 그럼! 이제 더는 아냐!’

오동추는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그의 여자친구가 생길 날이었다.

9개월간의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의 여인이 입고되었다는 메시지를, 중고 거래사이트 전문업체 <단무지>에서 통보받았다. 그는 그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황홀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여친을 만들기 위해 그의 쥐꼬리만 한 봉급을 쪼개고 쪼개, 극한의 인내와 끈기로 수년 동안 돈을 알뜰살뜰 모았다.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물겨운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이제 보게 된 것이다.

오동추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잠시 드론 택시로 편하게 약속 장소까지 갈까 하다가, 시간이 아직 많은 남은 관계로, 물론 돈도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도곡동 하이퍼루프 열차 7번 출구로 방향을 돌렸다. 그는 길을 걸으며, 싸구려에 디자인도 구린 파인애플 스마트 안경을 쓰고, 단무지에서 받은 여친 카탈로그를 화면에 띄워 다시 한번 살폈다. 수백 번도 더 본 그 카탈로

그를.

길고 긴 밤을 외로움으로 울부짖는, 가엾은 늑대를 쫓 빼닮은 당신!  
이제 더 이상 자위에 소중한 당신을 맡기지 마세요!  
이 세상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에로틱 판타지를 위하여!  
눈부신 미모와 청순한 마음, 완벽한 몸매의 여친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제조사 및 모델 : <홍콩 다이내믹스> 안드로이드 형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로봇 시리즈 Sz  
사양 : 블루엑스 NPU 하피온 X999 탑재. 블루마인드 오픈 AI GPT-44. 17세대 인공지능.  
재질 : 티타늄 91%, 그 밖에 텅스텐, 코바, 인바, 모넬 성분 각각 1% 이상 함유한 내열합금.  
피부 : 하이드로젤 91.94% 특수 합성물질로 표면 인식, 조작, 쓰다듬기, 꼬집기, 비틀기 가능  
모델명 : 클래식 아시아 청순미 슈퍼스타 컬렉션 시리즈  
추천 인기 상품 : 김태이 xx, 송애교 xx, 전지은 xx, 김이선 xx, 전도은 xx

오동추는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폴짝폴짝 뛰면서 카탈로그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러자 클래식 시리즈에 걸맞게, 200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들을 쫓 빼닮은 사이보그 모델들의 3D 영상이 눈앞에서 환상같이 펼쳐졌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고혹한 미소와 섹시한 자태를 뽐내며 오동추님을 유혹하는 듯했다. 동추는 어느새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그녀들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마치 전봇대에 부딪힌 듯, 멍하며 눈앞이 캄캄하더니 갑자기 별들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상태로 길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야! 인마! 동추야! 이 덜덜한 놈아! 너 어따 정신 팔고 다니는 거냐! 응?”

오동추는 비뚤어진 스마트 안경을 벗고 정신을 차린 뒤 소리 나는 쪽을 보았다. 장이수와 그의 졸개들이 누런 이빨을 드러낸 채 히죽거리며 오동추를 둘러싼 채, 찌려보고 있었다. 특히, 장이수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LA 야구 방망이를 지팡이 삼아 한쪽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오동추는 조금 전에 자신이 부딪힌 것이 전봇대가 아니라 그의 야구 방망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직도 멍한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동추야! 니 오늘 뭐 억수로 좋은데 가는갑네? 요렇게 짹 빼입고 응? 기생 오래비같이 응? 하하하”

장이수 말에 졸개들도 눈치껏 덩달아 웃어 제겼다. 오동추는 헝클어진 정장을 한번 털고는 일어나 장이수의 눈길을 피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장이수의 야구 방망이가 그의 진로를 막았다.

“어허! 동추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일언방구도 없이 토끼면 쓰겼냐? 응? 이 덜덜어진 놈아.”

그 순간, 졸개 중 검은 뿔 태 안경을 쓰고 호리호리한 녀석이 불쑥 장이수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두목! 일언방구가 아니라 일언반구입니다. 한마디의 말과 반 구절이라는 뜻으로…”

“뭐라?”

장이수는 버럭 화를 내며 그 졸개를 째려봤다. 그 순간, 모든 졸개의 미소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 짝 사라졌다. 장이수는 험상궂은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다시 시선을 동추에게로 돌려, 야구 방망이로 그의 배를 툭툭 치며 협박성 멘토를 날렸다.

“동추야! 니 오늘이 무슨 날인가는 알제?”

“오늘???”

오동추는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오늘이 장이수와 무슨 관계인지를 추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오늘은 <그녀를 만나러 가는 날> 외에는 도저히 머릿속에 맏히는 게 없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 거지? 이수야?”

동추와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장이수는 동추의 되물음에 기가 찬다는 듯이 썩은 미소를 날리며 야구 방망이로 동추의 머리를 툭툭 쳤다.

“이 찌질한 말라리아 같은 놈아! 니 대가리는 정확조 똥물 뺨 때만 쓰냐? 생각을 해! 생각을! 그냥 확 눈깔이 먹물 뿜아가꼬 먹물 크림 파스타 해 먹고 흰자로 쓰리쿠션 날릴 새끼야! 오늘 이 이자날아냐! 이자!”

“하지만 이수야, 지난달에 모두 갚았잖아.”

동추는 억울한 표정을 얼굴에 새기며 장이수의 달달거리는 발끝을 쳐다봤다. 그러자 이수는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빙의라도 한 듯 이글거리는 적개심을 품은 채, 졸개들을 둘러보며 빈정거렸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당게! 이래서 내가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무용함에 동질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아냐! 그놈의 지긋지긋한 사지선다형 시험문제. 늘 찍기만 잘하지 도대체가 사회에 나와서 써 먹을게 없다 아이가! 동추야! 이 대가리에 변만 가득한 놈아! 변동금리! 변동금리도 모르냐?”

“변동금리라고?”

동추는, 여친을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기 위해, 장이수가 몸담은 <새출발 행복 상호금융>에서 <상생쾌락대출>을 받았다가 수년 동안 이수에게 시달리고 지난달에야 겨우 벗어났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듣도보지도 못한 새로운 용어 <변동금리>라는 말에 머리가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 변동금리! 이 돌대가리 식충아! 약정한 금리 재산정주기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금리! 귀가 똥구멍에 박혔으니 방귀 소리밖에 안 들리지?”

장이수는 머리를 한번 쓰윽 돌리고는 졸개들을 바라보며 우쭐대며 말했다.

“아그들아! 내가 이래서 이 비즈니스를 매니저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내 돈 빌려 가는 놈들 다 요 모양 저 꼬라지니까! 하나같이 지적 수준, 공감 능력, 성 인지 감수성이 개차반이거든…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게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해도 당최 알아 처먹지를 못해!”

장이수는 잠시 그르륵 거리더니 바닥에 굽고 노르끼리한 가래침을 멋있는 곡선으로 툭 뱉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한준 통화정책의 결정의 근간이 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표에 으거한 변동금리 상승. 그러니 동추야! 이 불쌍한 자괴감 덩어리야! 그러니까 너는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으거하여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7.94 퍼센트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이 말인 거야! 알겠냐?”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이나 더?”

동추는 이수의 눈치를 살살 보며 조용히 되물었다.

“그래! 마저! 동추야!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우리 동기 동창 동추야!”

장이수는 마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듯, 동추를 격하게 껴안으며, 썩은 내 가득한 입을 동추에 귀에 가져가더니 속삭였다.

“동추야! 마니 힘들제? 내 다 안다. 내 중학생 때 나 대신 니가 마니 맞았다는 거 내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4개월 깎아주께. 1년 동안만 내라. 내 마음 니도 알제? 사랑한데 이.”

이수는 동추의 볼이 빨개지도록 뽀뽀를 몇 번 하고는 그를 풀어주었다.

“그래, 고맙다 이수야.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이번 주까지 갚으면 안 될까?”

“뭐라? 돈이 없다고?”

동추의 말에 이수는 삽시간에 조리돌림당하는 하이어나처럼 표정을 바꾸고는 으르렁거렸다.

“야! 아그들아! 안 되겠다. 나의 지극정성 선한 영향력을 배신으로 되갚으려는 자. 어떤 형벌을 내려야 나의 이 처절한 배신감을 쓰다듬을 수 있겠냐?”

\*\*\*\*\*

장이수 톨마니들에게 꿈데가르송 실크 와이셔츠와 브리오니 정장 슈트, 파인애플 스마트 안경을 강탈당한 오동추는 그들이 던져주고 간 몸빼 바지를 입고 펄럭거리며 열차역으로 뛰어갔다. 약속 시간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행인들이 하나같이 동추를 쳐다보고는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여친을 만난다는 사명감 하나로 꼭 참고 열차를 겨우 탔다.

시간에 겨우 맞추어 단무지 고객센터에 도착한 동추는, 이마에 빠질뻔할 흐르는 땀을 손으로 연신 닦으며 로봇 여직원에게 바코드가 새겨진 3D 주문 창을 찍었다. 담당 직원은 난닝구 바람으로 앉아 있는 동추를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보면서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고객님, 실례지만 아무래도 정밀 인증을 하여야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동추는 헛바닥을 길게 내밀고 눈을 크게 뜬 다음 두 손바닥을 앞으로 폈다. 그녀는 스캔 건으로 동추의 안구, 헛바닥, 두 손바닥을 스캔하여 인증을 마쳤다.

“반갑습니다. 오동추 고객님. 도곡동 민재 골목 4가 흥민빌라 1층 다동에 사시고요?”

“네, 맞습니다.”

동추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문하신 물품은 2044년 출시, 중고 <홍콩다이 X999 티타 클래식 아시아 청순미 슈퍼스타 전지은 44 컬렉션> 맞으시고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동추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합성을 질렀다.

‘드디어 내 여인을 만난다! 조상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혼자이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에서 둘이거나 재밌거나 바쁘거나로 바뀐다. 뼈에 사무치도록 풍족했던 혼자만의 시간들... 아듀! 바이바이! 아디오스! 사요나라! 츄스! 땀 비엣! 빠까! 차오! 싸왓디! 짜이젠!’

“네. 고객님. 제품 성함은 <김말자>이고요. 현재 69번 방에 세팅하였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함이 김말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 아, 아니…. 그냥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아, 네 고객님. 이전에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백 열여덟 살의 노인이셨는데 아흔에 돌아가신 막내딸을 잊지 못해 그렇게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사만구천구백 원만 내시면 한국 사이버그 관리 공단을 통해 개명 가능합니다. 고객님. 신청하시겠습니까?“

”허걱! 오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요? 그깟 이름하나 바꾸는데?“

”아뇨! 사만구천구백 원 내시면 됩니다. 고객님. 그깟 이름하나 바꾸시려면.“

로봇 여직원은, 오늘도 진상 고객에게 많이 당한 듯, 동추를 짜려보며, 별 떨거지 같은 놈이 다 있다는 듯, 빈털터리며 말했다. 빈털터리 동추는 하는 수 없이 69번 방 스마트 키를 받아 들고 고객 센터 옆, 단무지 직영 <야리꾸리한밤> 모텔로 향했다.

\*\*\*\*\*

69번 방문을 열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들어간 동추는 순간 흠칫하며 놀라고 말았다. 붉고 흐릿한 조명 속에 그가 마주한 것은 세로로 세워진 관이었다. 마치 공포 체험 파크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우씨! 이게 뭐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같네.’

동추는 후덜거리는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마침내 관 뚜껑에 붙은 경고문을 확인했다.

‘성명 : 김말자’

‘주의 사항 : 단무지 관계자 외 절대 개봉 금지. 허가되지 않은 개봉으로 인한 파손, 불량, 오작동에 대해서 저희 업체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동추는 관에 무심결에 얹어 놓았던 손을 화들짝 떼며 뒤로 물러났다.

‘우씨! 큰일 날 뻔했네!’

동추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요란한 장식으로 된 둥근 침대를 발견하고 그곳에 엉덩이를 살짝 갖다 댔다. 그러자 물컹하며 그의 엉덩이가 쑥 들어갔다. 그는 가까스

로 균형을 잡으며 속으로 외쳤다.

‘아이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바로 그 물침대라는 거구나! 하하하.’

동추는 어린애처럼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꿀렁거리는 침대에 몸을 맡겼다. 그런데 그 순간, 침대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침대 위 사이키 조명이 울긋불긋한 빛을 사방팔방으로 발산하며 정통 카바레 뮤직이 천장에서 흘러나왔다. 신이 난 동추는 대자로 드러누워 천장에 붙은 원형 거울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난닝구와 몸빼 차림을 한, 꾀죄죄한 중년 아저씨가 헤죽헤죽 웃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각한 동추는, 갑자기 웃음을 싹 거두고, 만약 김말자가 자신을 처음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청년이 뛰어 들어왔다. 그는 갈색 작업복을 입고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 불 켜고 할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는 단무지에서 로봇 조립을 담당하는 손석구 기사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자 씨도 조립해야 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손석구는 성큼성큼 관으로 가더니 스캔 건을 꺼내 관에 붙은 여러 개의 바코드를 찍었다. 그리고 마이패드 액정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아, 아닙니다. 고객님. 완성품입니다. 그냥 몇 가지 체크만 하고 주의 사항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네?“

”죄송하지만 음악과 사이키 조명 좀 꺼주시겠습니까? 주위가 어수선해서 집중이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끄는가요?“

”아, 그럼 제가 끄겠습니다.“

손석구는 손뼉을 세 번 딱딱딱 치고는 외쳤다.

”행복 모드 끝, 현실 모드 시작!“

손석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침대와 사이키, 음악이 멈추었다. 그리고 방의 조명이 환하게 밝아왔다.

”자, 이제 고객님, 본격적으로 개봉 작업을 하겠습니다.“

손석구는 능숙하게 관에 박힌 볼트를 모두 제거하고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스펀지 완충재와 비닐에 둘러싸인 김말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사는 조심스레 비닐을 제거하고 그녀를 번쩍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오동추는 복받쳐 오르는 설렘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그녀의 얼굴은 보호 스크린으로 가려져 있고 몸은 평퍼짐한 붉은 비닐 슈트로 감싸져 있었다.

손석구 기사가 스크린을 제거하자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누가 봐도 전지은과 똑 닮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동추가 고개를 숙 내밀고 좀 더 가까이 그녀에게 다가서며 얼굴을 살펴보니 왠지 얼굴에 주름도 좀 있는 게 나이가 들어 보였다.

”저, 기사님, 이게 제가 주문한 전지은 모델이 맞는 건가요? 엽기적인 소녀에 출연했던?“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석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패드의 액정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고객님, 주문하신 모델이 전지은 44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제품과 일치합니다. 전지은 44살 때 모습입니다.“

”네? 전지은 44살 때 모습이라고요? 그럼 44가 나이인가요?“

”네. 나이입니다. 고객님은 뭐라고 생각한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44가 가슴 치수…. 44인치….“

동추는 마치 누가 들으면 큰일 날 듯이 손석구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오호호, 수컷의 로망. 44인치. 헤헤헤“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뜻이 맞았는지 서로를 쳐다보며 끈적한 웃음을 교환했다.

”고객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고객님의 귀책 사유이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을 신청하게 되면 구매가의 30%를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만.“

”아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44살의 전지은도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여인입니다.“

”아, 네. 그렇죠.“

손석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개봉 작업에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작업을 마친 듯, 흩어진 공구를 챙기고 오동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모든 개봉 작업은 마쳤고요. 김말자 님을 부트하기 전 몇 가지 주의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구는 주의 사항이 적힌 플라스틱 종이쪽지를 동추에게 건네며 말을 이어갔다.

”만 불의 일의 확률이지만 아무튼 고객님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제품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고객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복한 행위를 하는 도중 갑자기 고객님에게 관절기가 들어간단든지 리버스암바 같은 걸로 팔을 비튼다든지 등등 심하면 고객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외치시면 로봇이 즉시 동작을 멈추고 섯다운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한번 외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말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김말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을 못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어 네 이키드 초크 같은 것에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제품의 꼬리뼈 부분에 세 번의 탭을 치면 자동 섯다운이 됩니다. 자 그럼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손석구는 두툼한 슈트에 쌓여있는 말자를 뒤집어 꼬리뼈 부근을 손으로 가볍게 탁탁탁 세 번 치는 시늉을 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로봇이 사람을 진짜로 공격하곤 하는 건가요?“

동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석구를 바라봤다.

”고객님?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아시죠?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2원칙, 로봇은 인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네.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저희 단무지가 취급하는 모든 로봇 제품은 이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제품, 그러니까 KS, KC, KTR, ISO, TL, IEC, CCC, PSE 인증을 모두 통과한 중국산 혹은 인도산 정품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 변방의 후진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산 짜가 제품은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99.99% 안심하셔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고객님이 구매하신 김말자는 대략 80년 전 생산된 구모델로 핵심 AI OS를 제외한 부품 대부분이 여러 주인을 거치면서 값싼 미국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콜라리스 17 이후 거의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고객님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만한 사양의 로봇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하자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작동 가능성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건가요?”

오동추는 1초라도 빨리 말자를 안아보고 싶어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네. 모든 준비 완료입니다. 고객님. 자 이제 김말자님을 깨울 시간입니다. 시스템 온,오프의 정식 버전은 오른쪽 손가락으로 로봇의 코와 입을 누르고 왼쪽 손가락으로 배꼽 근처를 지그시 5초 동안 누르면 깨어납니다. 하지만 로봇을 깨우는 아주 쉬운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키스입니다. 오동추님의 입술 주름이 이미 김말자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입술을 갖다 대고 5초쯤 지나면 자동으로 깨어납니다. 그럼 직접 한번 해 보시죠.”

“아, 그렇군요.”

동추는 석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둘러 말자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포갰다. 말자의 입에서 향긋한 딸기향이 올라왔다. 동추는 그 상태에서 말자가 눈을 뜨고 자신을 쳐다보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말자의 몸이 반응했다. 손가락, 발가락이 꿈지락거리더니 이윽고 콧구멍에서 숨소리를 내면서 크고 우아한 눈을 살포시 뜬 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사방을 스캔하는 듯 보였다. 동추는 그녀를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떴다.

“그럼, 고객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단무지 로봇 조립 기사 손석구였습니다.”

손석구가 사라지고 이제 둘만 남은 상황. 동추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런데 말자의 입에서 고혹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동추 주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말자라고 해요.”

“아, 네 네 네 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말자 씨!”

“그런데 주인님은 참 성질도 급하셔라. 그래도 명색이 청춘남녀 첫 대면 자리인데 난닝구에 몸빼 차림으로... 호호호 제가 그렇게 고혹적인가요?”

말자는 다리를 배배 꼬며 추파를 던지듯, 입술을 둥글게 모으고 큰 눈을 깜빡깜빡했다.

“아니, 그게... 내가 이렇게 차려입은 사연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말자 씨, 주인님이라는 용어는 좀 거북살스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로봇과 인간이지만... 비록 내가 말자 씨를 돈으로 구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로... 미래의 연인으로, 어쩌면 부부로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을 맞대며 살 텐데... 아 참, 말자 씨는 계속 검은 머리로 살겠지만.”

오동추는 심장이 벌렁벌렁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다.

“호호호... 안다스텐, 안다스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성질 급한 오동추님??? 그럼 이거 어때요? 오빠!”

말자는 오동추의 난닝구 어깨 부분을 살짝 잡아당기며 구취제거제 <잇향 핑크> 한 알을 동추의 입속에 쑥 밀어 넣었다.

“오빠? 그 그 글썸... 그게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기엔... 나이가... 그러니까 말자 씨는 할머니뻘인데... 모델 나이도 44살이면 나보다 많고... 글썸???”

동추는 얼떨결에 잇향을 꿀꺽 삼키고는, 체내에 칼칼 쏟아지는 옥시토신, 엔도르핀, 도파민,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호르몬에 의하여 정신을 온전히 그녀의 섹시 자태에 뺏긴 채, 하체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아! 그럼 이걸 어때요? 서방나이이이이임.”

말자는 비틀거리는 동추의 허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은 뒤 그녀의 풍부한 가슴을 바싹 밀착하며 동추의 귓속에 속삭였다.

“그 그 그래, 그게 좋겠다. 서 서 서방님.”

동추는 격렬하게 요동치는 심장으로 숨이 멎을 듯 말 듯, 사지를 부르르 떨며 황홀한 말자의 딸기향 향수를 폭풍 흡입하기 시작했다. 때가 무르익었음을 감지한 말자는 손뼉을 두 번 딱딱 쳤다. 그러자 방이 삽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방의 80%를 차지하는 물침대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잠깐 동추의 거친 숨소리와 사각거리는 옷감 소리만 들렸다.

“자 자 잠깐만... 우리 불 켜고 하면 안 될까?”

말자가 막 동추의 입술에 키스를 감행하려고 할 찰나 동추가 벌벌 떨며 외쳤다.

“아잉! 서방님! 비록 제가 쇠로 된 로봇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첫날밤인데, 명색이 철골 있는 사대부 가문의 조신한 여인네가 어떻게 감히 속살을 흰히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자세를 취하겠사옵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아 아니 그래도 우리 말자 씨 멋진 몸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미치도록... 정말 정말 보고 싶은데... 아 아니면 잠깐이라도... 응? 안될까?”

동추는 마치 슈렉에 나오는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간절함을 온몸에 담아 말자에게 애원했다.

“주인님, 아 아니 서방님의 소원이라면 뭘든 제가 못 해 드리겠습니까? 소녀는 그저 주인님을... 아 아이 씨팔! 자꾸 주인님이 나오네, 입에 배겨서... 아 아무튼 소녀의 삶 그 자체는



그저 서방님의 행복 추구에 목적이 있는바, 서방님의 뜻이 그러하운데 어찌 감히 제가 청을 묵살하고 가벼운 명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마마”

말자는 다시 손뼉을 다닥 다닥 다다닥 다닥다닥 다다다다닥 치며 외쳤다.

“십팔!”

그러자 야사시시한 붉은 조명이 방을 섹기스럽게 채우며 밝아졌다.

“그런데 말자 씨, 십팔은 무슨 뜻인가요?”

“아, 네 서방님.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도, 조도, 휘도를 모두 18%로 조절하였사옵니다. 어 떠신가요? 이제 제 몸매가 확연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몸의 윤곽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전 말자 씨의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날씬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랄까??? 좀 통 통한…”

동추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한마디로 육덕진 몸매다 이거죠?”

“네, 육덕진 몸매.”

“하! 그놈의 변태 영감탱이 땀시 첫날밤 치를 때마다 같은 소리 듣고 앉아 있네… 우씨!”

말자는 빈정상한듯 씩씩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네? 변태라고요?”

“아, 그! 있어요! 세 번째 주인! 그 변태 영감탱이가 허구한 날 육덕진 몸매 육덕진 몸매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니 글썄 저를 압구정 7번 출구 <다뜻어고쳐 로봇 성형 센터>에 보내어 그만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서방님. 참 재수 없는 로봇 녀은 뒤로 자빠 쳐도 코의 나사가 풀린다더니만…”

“하 하지만 말자 씨,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좋아했던 고전영화 <엽기적인 소녀>에 출연했던 전지은 배우를 떠올렸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화를…”

동추는 자신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후회막급하며 분위기를 다시 띄워 원초적 본능 모드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말자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더 웃긴 게 뭘 줄 아세요? 글썸 그 영감탱이가 돈 아낀다고 저를 그 압구정인가 뒹구정인가 하는 거기로 데려갔는데 글썸, 불법 무허가 시술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놈들이 제 몸에 붙은 중국산 정품은 몽땅 떼어내고 죄다 녹슨 짝퉁 독일산 중고 야매 제품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지금도 날이 굵거나 바람 불고 습도 높고 황사가 심한 날은 온몸 구석구석 뼈긋뼈긋 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글썸… 그놈이 생긴 것도… 눈이 쪽 찌져서 아주 음탕하게… 늘 게슴츠레하게 가재비 눈으로 가녀린 저를 훑어보며 깔떡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글썸… 그래봤자 고작 1분도 못 채우는, 막 뽑은 가래떡 주제에… 그야말로 무용지물… 아무튼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닭살이 솟구쳐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며…”

마침내 동추는 말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애원했다.

”말자 씨! 저는 괜찮습니다. 말자 씨의 육덕진, 아 아니 좀 통통한 몸매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 그만 자중하시고 조금 전의 로맨틱한 무드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아, 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그만… 그때만 떠올리면 괜히 심통이 붙어져서리… 죄송해요… 가인박명이라고들 하잖아요. 제가 한 미모하다보니 운명이 박약하거든요… 살아온 날들에 비해 흥측한 과거가 좀 많아서 그래요. 용서하세요. 서방님.“

말자는 삼시간에 표정을 엘레강스하게 바꾸고는 다시 코맹맹이 소리 모드로 변환한 뒤 동추의 입술을 탐하려 입술을 쭈욱 내밀었다. 그런데 그때, 동추는 그녀의 입술을 손으로 툅 막으며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말자 씨. 갑자기 그 변태 노인네와 어떻게 헤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되긴요? 저와 석 달도 못살고 황천길로 굿바이 했죠.“

”아니 어찌다?“

”사필귀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인류가 증기기관차 발명 이후 최고의 발명품으로 찬사를 받던 그놈의 지긋지긋한 비아그라… 그 비아그라 유사 제품인 팔팔시럽, 곳곳한정, 센놈정의 스위트산 가짜 짝퉁 유사 제품을 허구한 날 밥처럼 처먹더니 어느 날 눈 떠보니 제 배 위에서 대자로 뻗어있는 거 있죠. 그것도 지극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집 꼬라지 하고는

화끈하고 수고스러운 첫날 밤을 무사히 치른 오동추는, 다음날 늦은 오전에 말자와 다정히 팔짱을 낀 채, 자이로카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오동추는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왜냐구? 너무 밝혀서.

오동추는 하루 만에 눈이 옴폭 들어가고 다크 서클도 선명하며 푸석푸석한 피부에 토끼 눈 마냥 빨갭게 충혈이 되었지만, 기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달콤했다. 그는 말자의 뽀얀 얼굴에 연신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와 함께 만들어갈 알콩달콩한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 나갔다. 적어도 말자의 투덜거림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오메! 이것 봐! 이것 봐! 강남구는 그제나 저제나 여전히 을씨년스럽구먼!”

말자는 동추의 집으로 가까울수록 점점 황폐해지고 더럽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바깥세상을 바라보며 탄식을 쏟아냈다. 거리는 부랑아들이 넘쳐나고 노숙자의 텐트가 인도를 거의 다 잠식했으며 마약에 찌든 좀비 형 인간들이 여기적어기적 걸어 다니고 있었다.

”아이고! 가련한 내 팔자야! 이쁘게 태어나면 뭐하노? 결국은 경국지색이거늘. 파란만장한 내 팔자! 허구한 날 걸리는 건 할아버지에 치매 걸린 영감탱이들 뿐이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주인 만났다 싶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사는 강남 에어리어! 결국, 이번에도 이 더럽고 추잡한 동네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화근지인인데 누굴 원망하겠노? 그저 이 한 몸…”

참다못한 동추가 말자의 입을 손으로 가로막았다. 그리고 애원했다.

”말자 씨! 지금은 비록 이렇게 누추한 곳에 살고 있지만 내 꼭 열심히 돈 벌어서 쌍문동으로 이사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쌍문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서방님 직업이 의사래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박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조종사 등등 자고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 중에 돈 잘 버는 거 봤어요? 보나 마나 쥐꼬리만 한 봉급일 텐데…. 쌍문동은 고사하고 노량진 정도만 가도 이 소녀 한평생 서방님 은혜에 감복하며 살겠사옵니다.“

말자의 툭 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동추의 심장을 콕콕 찔렀다. 하지만 그에게는 반박할 거리가 없었다. 모두 맞는 말이였다. 학창 시절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그에게 학교 공부는 사치였다. 내신 성적 14등급. 그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의대와 법대뿐이였다. 그것도 지방대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결국 남은 건, 서울대와 연세대뿐.

”하지만 너무 심여마세요, 서방님. 소녀가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마음만은 8월에 흙탕물에서 개화한 연꽃처럼 화사하고 따스하옵니다. 그러니 제가 내뱉는 쌍스러운 말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추풍에 부치는 노래마냥 그저 흘러들으시옵소서. 네?”

말자는 자신이 첫날부터 너무 몰아붙였다고 느꼈는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푹 죽어 있는 동추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정말?“

말자의 달콤한 말에 동추는, 동네 개업 행사장에 빠짐없는 등장하는, 춤추는 바람 인형처럼 별떡 고개를 들고 헤죽거렸다.

”그럼요. 정말이죠. 서방님.“

말자는 동추를 꼭 안으며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

마침내 집에 도착한 동추와 말자. 동추는 서둘러 말자를 침대에 눕히고 짜릿한 시간을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말자는 단호했다.

”우씨! 아니 서방님? 이게 지금 집 꼬라지라고 해 놓고 사는 거예요? 네? 쓰레기 매립지가 따로 없네!“

동추는 그래도 말자를 맞이하기 전,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공간을 치우고 쓸고 닦고 정리 정돈했지만, 깔끔을 뜨는 말자의 성에 찰 리가 없었다. 그녀는 부산을 떨며 온 집안을 스캔하더니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정리 정돈부터 하기 시작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뒷마당에는 동추가 그동안 버리기 아까워 구석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수많은,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대청소가 그 뒤를 따랐다. 말자는 씩씩거리며, 청소 대행업체처럼 여러 가지 약품을 이용해 집 전체를 구석구석 닦고 조이고 물 칠했다.

결국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동추는 그냥 잤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동추는 순간적으로 집을 잘못 찾은 것으로 착각할 뻔했다. 허름한 외관에 비해 실내는 오성급 호텔을 뺄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우아했다. 말자의 감성적 터치와 예술적 심미안이 집안 곳곳에 조화롭게 버무려져 화려한 꽃을 피웠다. 게다가 말자가 정성껏 준비한 막창, 곱창, 대창 구이는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였다.

너무도 행복한 동추는 밤에 펼쳐질 말자와의 환락의 시간을 기대하며, 자기 몸을 뽏뽏득득 구석구석 잘 닦고 침대에 누워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말자는 여전히 바빴다. 그녀는 이제 집의 바운드리를 넘어 흥민 빌라 전체를 스캔하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자에게는 무척 바쁜, 동추에게는 아주 행복하지만, 성적으로 2% 정도 살짝 부족한

날들이 가고 주말이 돌아왔다.

오동추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문득 잠에서 깬다. 아니나 다를까, 어딘가에서 부릉부릉하는 낮은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뽀얀 연기가 지하 통풍구에서 피어올라 흐린 하늘로 번졌다. 순간 그는 지하에 불이 났다고 판단하고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튀어 올라 황급히 김말자를 찾았다.

“말자야! 말자야! 어디 있니?”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젠장! 애는 또 어디로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타일렀건만... 잠시라도 궁둥이를 그냥 붙이고 앉아 있지를 않네! 하여튼 말 하나는 더럽게 안 들어!”

오동추는 투덜투덜하며 복도에 세워진 간이 소화기를 집어 들고 계단을 통해 다급하게 밑으로 내려갔다. 흐린 날, 지하는 더욱 어두웠다. 문을 열자마자 굉음에 가까운 소음이 지하 공간을 찌렁찌렁 울렸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짙은 연기 속으로 매캐한 기름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의 숨통을 조였다.

“씨팔! 도대체 어디에 불이 난 거야?”

오동추는 소화기 노즐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엄청난 소음의 진원지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와 연기의 주범을 파악했다.

짙은 코발트블루의 부가티 볼리드 W99 테크니크 스포츠카였다. 최고 시속 600km. 100년 전, 화석 연료를 사용한 차량 중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슈퍼카였다. 하지만 지금은 원자력 차에 밀려 그저 박물관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김말자! 미쳤어? 그만해!”

오동추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계속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말자를 발견하고 크게 외쳤다. 하지만 말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액셀을 밟았다 놓았다 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오동추는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날려 그녀의 손을 겨우 잡았다.

“제발! 이 바보야! 뭐 하는 짓이야! 시동 꺼! 시동 끄란 말이야!”

그제야 말자는 시동을 끄고 동추를 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와우! 서방님! 정말 엘레강스하고 파워풀한 차를 갖고 계시는군요! 비록 선사시대 유물이지만.”

“엘레강스고 나발이고 간에 도대체 여기는 왜 또 기어들어 온 거야? 응? 도대체 내가 한시도 눈을 떼 수가 없다. 제발 좀 나대지 좀 마!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잡아 간데?”

오동추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험악한 표정을 얼굴에 새긴 채 그녀를 노려봤다.

“서방님! 너무 하십니다! 제가 기어들어 왔다고요? 저보고 나대지 마라고요? 비록 제가 법률적, 계약적, 사회적, 도덕적 맥락에 따른 주종관계에서 종의 역할, 즉 을의 처지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자아를 인식하고 고통도 느끼는 생체공학적 휴머노이드 객체로써 서방님의 모욕에 가까운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이는 향후 지속적인 친밀함과 육체적 끌림을 전제로 한 동등한 관계 즉, 여자친구의 자격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 가련한 가슴에 새긴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주홍글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방님!”

“어휴! 말이나 못 하면 입지나 얹지! 아무튼 빨리빨리 차에서 내려! 이 더러운 지하실에는 한 순간도 있기 싫으니까 빨리 올라가자고!”

오동추는 다시 한번 말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조금 전에 쏟아낸 말에 미안함을 담은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말자는 언제 서운했냐는 듯이 표정을 싹 바꾸어 헤헤거리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런데 서방님, 저렇게 고상한 골동품 차는 언제 장만한 거예요?”

말자는 동추의 가슴에 바짝 붙어서 코맹맹이 소리로 속삭였다.

“장만하기는? 그냥 물려받은 거야.”

“오호! 놀라우셔라! 이건 뭐지? 가문의 유산치고는 무척 세련된 감각! 정말이지 서방님 조상님은 대단하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방님. 보통 그렇지 않아요? 조상의 유품이라고 해 봤자... 뭐 특 하고 건드리면 바스러질 도자기거나 낡아 빠진 종이에 지금은 사라진 한자투성이의 책들... 그래 족보 같은 거... 또 뭐 있지? 그래... 인장, 노예 문서, 금두꺼비 등등.”

“집안 대대로 스피드광이 많았거든.”

오동추는 지하실을 나서며 약간 우쭐한 기분을 느끼며 말했다.

“오호! 보기와 다르게 정말이지 익사이팅한 집안이네... 그럼 그 뭐야? 조상님 중에 프로레이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 씨라면... 그러면 혹시 오달수?”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추고 말았다.

“와! 오달수! 맞아요? 서방님. 정말 전설의 카레이서 오달수 님이 서방님 조상인 거예요?”

말자는 신이 난 듯 방방거리며 동추에게 치근 듯 거리며 답을 재촉했다. 하지만 동추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며 괴로운 듯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야.”



오달수와 유해진

오동추의 아버지 오달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는 다섯 형제의 둘째로 태어나 이미 십 대 시절부터, 형과 함께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돌아다녔다. 음주, 흡연은 당연하고 무단결석은 밥 먹듯이 하였으며 마약, 절도, 사기, 폭해 등 소위 일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다. 그러므로 열여섯 살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감옥을 제집보다 더 친밀하게 여길 정도였다.

다만, 다른 제조자에 비해 남다른 점이 있었다면, 돈벌이에 탁월한 재주를 보여, 교도소에 있거나 사회에 있거나 늘 수중에 돈이 넘쳐났다. 이를 눈여겨본 감방 동료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광수. 훗날 한국 최대 마피아의 대부이자 <진실파>의 보스 마동식의 아버지였다.

어느 날, 서른을 갓 넘긴 오달수는 출소하자마자 라도베가스 여수로 발길을 돌렸다. 그보다 두 달 먼저 출소한 마광수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남해가 시원하게 펼쳐진 해안 도로 옆에 제법 규모가 큰 카페를 인수하여 술집 <남킹> 클럽을 개업했다. 그런데 말이 술집이지 거의 성매매업소에 가까웠다. 다양한 국적의 무희들이 매일 밤 쇼킹한 스트립쇼를 펼치며 성매수자를 끌어들었다. 한마디로 굶주린 늑대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연일 남킹의 출입구에는 대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달수의 아이디어와 광수의 자금력이 만나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 두 사람의 역할도 뚜렷했다. 광수는 남킹의 실질적인 오너로, 여수의 권력 실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클럽의 안전과 보호를 맡았고, 달수는 동생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짝짝 빵빵 미녀들을 지속해서 공급하였다.

이때, 달수는 데려온 여자 중, 착하고 순진한 여인들은 자신의 여친으로 삼고, 그중에 몇몇은 임신까지 시켰는데, 그 자식 중에 오늘의 주인공 오동추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튼 그렇게 호시절을 지내던 어느 날, 달수는 클럽 VIP 고객 중 유해진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알게 되었다. 유해진은 그야말로 사기 영업의 대가였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생애 첫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품목은 창고에 재고로 가득히 쌓여있는 숯이었다. 주로 공기정화, 습도조절, 악취 제거 등에 사용하는 제품이었었는데, 그는 <숯>이라는 용어를 <활성탄>으로 짝 바꾸고, 활성탄의 표면에 많은 미세 구멍이 체내의 독소를 빨아들인다는, 근거 없는 가짜 논문을 내세워 이 제품이 설사, 변비, 소화불량, 숙취 등을 예방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며 심지어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렇게 하여 그는 몇 년째 방치되어 있던 숯을 단 한 달 만에 다 팔아치웠다. 그것도 비싼 값으로.

이에 자신감을 얻은 유해진은 실로 다양하기 그지없는 사기 제품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으로 <팔각수 항암 생명수> <두뇌 건강 브레인스퀘어> <일렉트란 전기 충격 체중 감량기> <멜리나 419 가짜 송금앱> <헤라노스 영터리 질병 진단기> <가짜 루이비통 가방> <가짜 올렉스 시계> 등등.

하지만 그의 놀랍고 대범한 사기 행각은, 두 명의 인플루언서 <사막여우>와 <호구구조대>에 의해 날날이 까발리며, 결국 유해진은 구속되어 3년을 옥살이하고 풀려났다. 출소 후에 그는

기존의 사기 영업에서 발을 빼고, 좀 더 위험하지만 크게 한방 해치울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 탔는데, 그게 바로 밀수였다. 그가 클럽 <남킹>에 뻘질나게 들락날락하게 된 것도 그의 사업 전략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름 없는 졸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밀 아지트였다.

유해진은 클럽에서 재력가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사고 그들의 니즈에 걸맞은 고가의 제품을 밀수하여 제공하였다. 그가 비밀리에 들여오는 제품 중에는 수억 원 상당의 슈퍼카뿐만 아니라 수백억 상당의 전용기, 요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군사용 무기들도 팔았다. 그는 이 모든 일 처리를 철저하게 혼자서 수행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밀 유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약속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납품일에 맞추어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자들의 신뢰는 철옹성처럼 단단했다.

이즈음에, 유해진과 오달수가 마치 영혼의 단짝처럼, 멋진 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클럽 여자 공급의 주요 루트였던, 상하이 지점에서 출발한 수송 보트가 그만 해상경비대에게 나포되고 만 것이다. 이 일로 달수는 보트를 압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입막음용 돈을 뿌려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당장,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수송용 보트가 필요했다. 해상경비대의 추적을 우습게 따돌릴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을 갖춘...

달수의 요구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유해진이 유일했다. 유해진은 중형급 플라이브릿지 유람선에 두 쌍의 슈퍼 레이싱 엔진을 달아 시속 100노트의 초고속 보트를 만들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를 맞먹었다. 첫 시험 운전에서 달수가 운전대를 잡았다. 다들 위험하다고 그를 뜯어말렸지만, 달수는 웬지 모르게 업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첫 운전에서 줄곧 최고 속도를 유지하며 거친 바다를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며 달렸다. 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와 동승했던 이들은 거의 초주검 상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달수는 이 세상 그 어느 순간보다 짜릿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심지어 마약보다 좋았다.

달수는 타고난 스피드광이었다. 사실 그의 집안 내력이었다. 그동안 의사 집안이라는 전통에 가려져 그들만이 갖춘 스피드 유전자를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달수가 비로소 깨달은 거였다. 이후, 달수는 유해진으로부터 시속 300km를 자랑하는 레이싱 보트를 2대 주문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바다로 끌고 나가 스피드를 즐겼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레이싱이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듬해 그는 아마추어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했다. 압도적인 실력 차로 그는 일등을 차지했다.

자신이 붙은 달수는, 아예 자신의 레이싱을 서포트 해줄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유해진이 회사의 중책을 맡았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최고의 장비가 필요한 법. 유해진은 최고의 모터보트를 찾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을 누볐다.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동유럽 쪽에도 쫓고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유해진은 체첸 공화국의 한 군수 공장 창고에서 새로운 방식의 슈퍼터보 엔진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그의 레이싱 성적은 수직으로 상승하였다. 프로로 전향한 달수는,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최고의 모터보트 레이서가 되었다. 어느 해에는 모든 대회를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당연히 엄청난 명성과 천문학적인 우승 상금이 따라왔다. 달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유해진에게 최고의 스피드 레이싱 자동차를 주문했다.

최고의 스피드 유전자를 가진 달수.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장비라면 땅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기어코 가져오는 해진. 이 둘의 합작은 카레이싱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아마추어 카레이싱 대회부터 시작한 달수는 채 2년도 되지 않아 프로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카레이서 상금 순위 톱 10에 진입했다.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한 루키였다.

하지만 이러한 승승장구가 그에게 빛이라면 그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으니, 그것은 바로 마광수와 독버섯처럼 사방에 뿌리내리고 있는 <진실파>였다. 달수가 유명해지면 해질수록 그의 조폭 연계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일 언론을 달구었다. 달수는 광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 사이가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밝은 세상의 스타와 어둠의 세계 제왕이 영원히 공존할 수는 없는 법.

결국, 이듬해 마광수는, 본인마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오달수를 놓아주는 대가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어찌 보면 마광수가 베푸는 선심일 수도 있고 오달수가 <헤어질 결심>을 굳히기 위한 명분이기도 했다.

그것은 승부조작이었다. 포물러원에서 한 시즌 7개 그랑프리를 연속으로 우승한 오달수는 8번째 그랑프리가 열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그의 우승 확률은 54.4%. 그가 준우승 이상할 확률은 89, 3%에 달했다. 마광수의 요구는 간단했다. 오달수가 우승과 준우승만 하지 않으면 된다였다. 오달수에게는 이보다 더 쉬운 레이스는 없었다. 또한, 마광수는 이보다 더 쉽게 큰돈을 벌 기회도 없는 셈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늘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어느 시점에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기 마련이다.

레이싱은 지극히 순조로웠다. 10.144 km의 서킷을 77바퀴 돌아야 하는 레이싱에서 오달수는 30바퀴부터 일찌감치 선두로 나섰다. 2등과의 격차도 반 바퀴 이상 벌어진 상황.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간격 조절에만 신경을 썼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지막 2바퀴를 남겨놓은 시점이 되자 그는 선두자리를 내주려고 속도를 줄여 나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자신의 차량과 나란히 달리게 된 2등 레이서를 순간적으로 훑듯 보게 된 오달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녀석이 오달수를 보며 혀를 빼꼼 내밀며 조롱하듯이 앞서나가는 거였다.

그 순간 오달수는 마광수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도 돈으로 매수를 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즉, 저 녀석은 오달수가 막판에 속도를 줄이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빈정대는 거였다. 달수의 배알이 풀리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솟고 심사가 뒤틀렸다. 오기가 뻗쳐 나온 그는 증오의 악셀을 밟아대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짧은 순간의 광기가 오달수를 몰락으로 보내 버렸다. 그는 연속으로 8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로 다음 날, 그의 영혼의 파트너 유해진이 차가운 바다에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채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오달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마광수는 자신이 평생 굶어모은 재산의 절반을 날렸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를 분노케 한 것은 바로 자존심이었다. 한마디로 이거였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오달수는 살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너무도 유명한 얼굴이기에 숨기가 힘들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며 졸졸 따르던 여인들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하지만 이미 마광수의 졸개들에게 협박받는 상황. 아무도 그를 받아 주지 않았다. 단 한 사람, 오동추의 어머니만 그를 반겼다.

그날, 오동추가 기억하는 것은 잠결에 들은 슈퍼카 소음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가와 쑥덕이는 소리. 잠시 후, 동추의 방문이 뿅 열리고 낯선 남자는 한동안 동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침. 동추는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가 방문을 열고 본 광경은 곳곳에 깨진 그릇과 흩어진 핏자국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알고 있던 오달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지하에 부가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미션 임파서블

9번째 새로운 주인의 살림을 맡게 된 말자. 그녀는 풍부한 동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평일 오전 7시, 자기 배꼽 알람 시계가 진동하면 서방님을 흔들어서 깨우고, 그녀는 아침 준비에 들어간다. 동추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수타 짬짜면. 그녀는 전날 만들어 놓은 쫄깃하고 찰진 강력분 반죽을 싱크대 옆에 마련한 나무 널빤지에 치대고 때리고 접고 또 때리고 늘리고 파배기처럼 배배 꼬아서 면의 굵기가 고른 면발을 능숙하게 만들어낸다. 그녀가 이렇게 숙달된 솜씨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4번째 주인이 짬뽕집 전문 중국집 <히로뽕>과 선술집 카페인 <스티브 잡술>의 오너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척 힘들고 바쁜 삶을 영위했는데, 낮에는 히로뽕에서 수타면을 뽑고 밤에는 스티브 잡술에서 술 시중을 들었으며 새벽에는 주인의 성 노리개 역할까지 하였다. 그러니 말자의 삶은 그야말로 출구가 없는 폐쇄 터널 속이었다. 그녀는 시커먼 더께가 덕지덕지 붙은, 주방의 좁은 창으로, 대변함을 오가는 멸치잡이 배와 그 위를 우아한 모습으로 비행하는 갈매기를 보면서 자신도 저 멀리 미지의 세상으로, 인간이 없는 곳으로, 훨훨 날고 싶은 꿈을 꾸곤 했다. 마치 조나단 리빙스톤 시겔처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꿈은 실제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히로뽕> 주인답게, 어느 날 주인은 마약 소지 혐의로 형사들에게 끌려갔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말자의 영당이 저장고에 몰래 숨겨둔 마약을, 경찰의 심문 과정에서 실토함으로써 그녀도 덩달아 구속되고 말았다. 국과수로 끌려간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 사이보그 전담 부검의의 주도 아래 모든 부품이 분해되는 굴욕을 맞보아야만 했다. 그날의 수치심과 절망감은, 아직도 그녀를 부지불식간에 몸서리치게 하곤 했다.

그녀는 결국, 마약사범 처벌 규정 제 59조 벌칙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죄가 적용되어 2년의 노역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 말자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놈에게 학대받는 거나 교도소에서 학대받는 거나 도긴개긴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이미 흡수 병합된, 북한행 죄수 열차를 타고 북으로 북으로 끝없이 올라가다 마침내 도착한, 삭막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는 수용소 건물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곳 입구 팻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아오지 탄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제철 조개류와 오징어로 감칠맛을 우려내고 매콤한 고추씨로 칼칼한 향을 더한 수제 짬뽕과 역시 갖은 해물과 특제 춘장, 양파를 적절하게 볶아 만든 수제 간짜장을 내놓으면, 오동추는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걸신들린 듯이 마구마구 입속에 쑥셔 넣기에 바쁘다. 그러면 말자는 그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동추가 마침내 젓가락을 밥상에 탁 놓고 심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으며 트림을 끄역하기 무섭게, 그녀는 재빠르게 물수건으로 서방님의 지저분한 입가뿐만 아니라 이빨까지 정성스레 닦는다.

동추가 출근하고 나면, 그녀는 깔끔 식기 세척기, 다빨아 통돌이 세탁기를 돌리고 로봇 청소기 <반짝이>에게 오더를 내린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코에 충전 커넥터를 꽂고 급속 배터리 충전 수면 모드로 들어간다.

말자의 빨간 엉덩이가 충전 완료 표시인 녹색으로 바뀌면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한 번 켜고 흥민 빌라 전체를 돌며 정리 정돈을 한다. 가끔 노숙자들이 몰래 들어와 자기 배설물로 세계 지도를 그리곤 하므로 말자는 검은 비닐, 소독제, 방향제를 갖춘 채 빌딩을 스캔한다.

오전 업무가 끝나면 말자는 서방님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대충 몇 개 날려주고 지하로 내려가 부가티를 끌고 나와 오래전에 폐쇄된 주유소를 찾는다. 그리고 주유소 탱크에 남아 있는 기름을 뽑아 슈퍼카에 주유하고, 2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린다. 대부분의 운송 수단은 20층으로 구성된 공간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1층에 해당하는 바닥 도로는 거의 텅 빈 상태다. 그러므로 그녀는 맘껏 악셀을 밟는다. 그녀가 밟을 때마다 자동차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플라잉 카들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웅알웅알하는, 마치 아기 웅알이 정도의 소음만 내지만 부가티는 천둥 벼락같은 굉음을 내기 때문에 모든 이의 이목이 그녀에게 쏠린다. 말자는 이 순간을 즐긴다. 마침내 찾아온 온전한 자유. 그녀는 아오지 탄광의 무너진 갱도에 파묻혀 손발은 구겨지고 목은 비틀어졌어도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

언젠가 내 서방님이 나를 구매해 주리라는 것을.

말자는 돌아오는 길에 에프마트에 들러 찬거리를 구입한다. 집에 와서도 온라인 마켓 - 심쿵, 사하라, 알지 익스프레스 -에 접속해 식자재를 더 주문한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전신 목욕을 개운하게 한다.

마침내 동추의 퇴근 시간. 말자는 백종운 레시피에서 선정한 오늘의 서민 요리를 정성껏 준비한 후, 처진 힘을 바쳐주고 가슴의 윤곽을 도드라지게 하는, 요염한 실크 반투명 속옷을 걸치고 크리스찬디옹의 <조강지처> 향수를 가슴과 허벅지, 겨드랑이, 귓볼에 뿌린 뒤, 뜻밖의 미소를 머금은 채, 문 열고 들어오는 서방님께 쪽 안긴다.

\*\*\*\*\*

마치 꿈처럼, 지극히 행복하고 로맨틱하기 그지없는 한 달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갔다. 동추는 입이 귀에 걸린 채, 바보처럼 해죽해죽, 싱글벙글거리며 직장과 집을 오갔다. 그는 말자가 너무너무 좋았다. 하긴 사십 평생 엄마 말고는 여자와 살아 본 적이 없으니 충분히 납득이 가고 수궁이 오는 상황이었다. 말자도 동추가 무지막지하게 좋았다. 이전의 여덟 명의 주인들에 비해, 동추는 확연히 젊고 순진하고 성실했으며 덜 변태적이고, 더 그녀를 사랑한다는 촉을 그녀가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었다. 말자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보다 더 좋은 순 없다. 암, 그렇고말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녀를 세상에 내보낸 오픈 AI 보스 <어른 머스크>님에게 감사하는 맘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겼다.

흥민 빌라 공간 전체를 고소한 깨소금 냄새로 가득 채운 날 들 속에, 말자는 어느 날 문득, 우리 낭군님의 회사 생활이 궁금해졌다. 동네 시립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인 오동추가 병원에서 간호사나 환자들과 잘 지내는지, 병원 내의 입지가 탄탄하고 실력도 좋아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지 아니면 잘리기 직전이지, 말자는 서방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궁금해서 미치고 환장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그녀는 가슴 저장고 4번 칸에 오랫동안 숨겨놨던, 코딱지만 한 초소형 몰래 녹음기를 끄집어냈다. 이것은 그녀의 다섯 번째 주인이 사용하던 것 중에 하나로, 사실 그녀의 풍만한 보디에는 공간이 넉넉했으므로 은밀하게 숨겨진, 일반인은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묘사스러운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녀의 다섯 번째 주인의 이름은 <이단 헌트>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전직 특수요원 할아버지였다. 말자는 이단의 간병인으로 팔려 갔는데, 그는 온종일 휠체어에 앉아 망상에 가까운 헛소리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간병인을 괴롭히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구라쟁이> 혹은 <이구라>로 불렀다. 그가 반복적으로 떠벌리는 것 중에는 IMF(Impossible Missions Force)의 배신자를 잡고 수석 요원이 됐다니, 자기 아내를 극적으로 구출했다다니,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다니, CIA가 해체한 IMF를 재건했다다니, 핵 테러를 맨몸으로 막았다다니, 인공지능을 박살 냈다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심지어 그는 초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거나, 비행기에 매달려 날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산 정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무용담을 늘어놓았으며, 실제로 물 위의 소금쟁이 처럼 두손 두발을 짝 편 채 건들거리며 흥내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알았다는 듯, 다들 고개만 끄덕이는 시늉을 했다.

말자가 그를 돌보기 위해 요양원에 갔을 때도 전임자는 그녀에게 딱 하나, 그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고만 알려주고 사라졌다. 실제로 그녀도 한동안은 이반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만 반복적으로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말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비록 잠깐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멈춘 채, 침묵 속에 눈빛을 반짝이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면 이반은 항상 말자에게 자신이 왜 여기 있으며, 지금은 몇 연도이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묻곤 하였다. 그리고 다른 전임자들과는 달리, 말자는 이반의 질문에 꼬박꼬박 정직하게 답을 해주었다. 말자는, 그 순간만큼은 할아버지가 치매에서 벗어나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을 확신했다.

그런 그녀의 정성이 통한 걸까? 어느 날, 다시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반은 자기 엉덩이 살을 작은 칼로 찢고는 초소형 마이크로캡슐을 꺼내 말자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말자야, 너는 입이 무겁느냐?”

“네, 주인님을 위해서라면 염라대왕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겠나이다.”

이반은 얇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캡슐을 입 가까이 가져간 뒤 속삭였다.

“아브라카다브라 미션 임파서블 요원 코드 BE11 아브라카다브라 명령 일 깨어나라.”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캡슐에서 푸른 광선이 뿜어져 나오며 공간에 3D로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열되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주인님.”

“이것은 스위스 융프라우 은행의 개인 비밀 금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다. 말자야, 지금 떠나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모든 것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주인님, 스위스까지 가려면 차비는?”

“아 차차차차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이반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가져오게 한 뒤, 가방의 입구를 짹 벌리고 그 속을 마구 뒤지며 온갖 잡동사니를 끄집어내더니 마침내 녹슨 원통형 물건을 하나 꺼냈다. 그리고 표면에 새겨진 알파벳을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다.

“주인님,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옵니까?”

“크립텍스(Cryptex)라는 물건이다. 암호를 맞추면 뚜껑이 열리고 그 속에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서 용돈 받을 때마다 안 먹고 안 쓰고 알뜰살뜰 모아놓은 내 비상금이 들어있느니라.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아껴두었지.”

하지만 크립텍스의 뚜껑은 좀체 열리지 않았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노인은 씩씩거리며 말자에게 외쳤다.

“말자야! 망치 좀 가져오너라! 이놈의 물건을 당장 박살 내던가 해야지! 열려고 할 때마다 이 지랄이야!”

결국 크립텍스를 아작내고 나서야 겨우 차비를 받게 된 말자는 다음날 이반 할아버지에게 한

보따리의 심상치 않은 물건을 안겼다. 그 속에는 거액의 현금다발, 각국의 위조 전자여권, 각종 무기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말자는 이반의 수제자가 되어 틈만 나면 외부 화장실 장애인 칸에 들어가서 특수 공작 훈련을 전수받았다.

코브라 트위스트

말자는 몰녹(몰래 녹음기)을 동추의 모든 팬티에 각각 심었다. 그리고 동추가 집을 나서자마자 말자는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몰녹 수신기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동시에 동추의 휴대폰에 몰래 심어둔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그의 동선을 모니터에 띄웠다.

동추는 그런 줄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도곡역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트루먼 쇼>의 <짐 캐리>처럼 행인과 마주칠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끝내주는 아침입니다. 나중에 못 볼지 모르니 좋은 오후, 넉넉한 저녁, 뽕가는 밤 보내세요.”

말자의 수신기에는 사각사각하는 동추의 바지 소리와 함께 털털거리는 플라잉 드론 소리, 뻑뻑거리는 고집불통 어린이 소리, 식석 하며 지나가는 호버보드 소리까지 짹짹으로 흘러나왔다. 말자는 웬지 모르게 대퇴부 저 깊숙이에서 짜릿하게 올라오는 몰카의 쾌감을 만끽하며 서방님의 동선을 눈과 귀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뽀오오옹 부르릉 텅텅텅 부르르릉 으잉이이잉 같은 생소한 잡소리가 메아리쳤다. 말자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건 뭘 소리지? 자연의 소리 같지는 않은데?’

이상야릇한 소리는 잠시 뒤 또 이어졌다.

“꼬르륵 웅탕 꼬리리릭 뽀오오오옹 부렁텅텅 크르르릉 뽅뽅뽅”

말자는 그제야 이 미스테리한 사운드의 정체를 알아챘다.

‘가죽 피리! 바로 우리 서방님 향문의 울부짖음이다!’

뒤이어 말자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를 확인했다.

그래, 그랬다. 동추는 별안간 전해져오는 아랫배의 묵직한 고통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비집고 쏟아져 나오는 액체 혼합 가스를 오로지 괄약근 하나로 버티며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찾기 위해 황급히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땀을 뺀뺀 흘리며 혼신의 노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공원 입구로 달려가 엄마 오리 뒤에 아장아장 따라오는 애기 오리를 화들짝 놀라게 한 뒤 마침내 공중화장실로 직행을 하였다. 그리고 생생하게 전해지는 문 여닫는 소리.

“탕, 땅, 철컹”

그 순간, 말자는 귀를 틀어막았다.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카레라이스 음향.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해보지만 생생하고 뚜렷하게 그 모든 배설의 과정이 머릿속에 정밀하게 그려졌다.

“아이, 씨팔! 내가 이러려고 뺨스에 몰록을 설치했나! 자괴감이 안들수가 없네!”

그리고 이어진 동추의 길고 긴 안도의 한숨.

“휴우우우우우우.... 아이고 진짜로 바지에 쌀뽀했네.”

동추는 배출의 쾌락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시 행복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기분을 한껏 북돋워 줄 고전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늘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 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 벽을 세차게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오동추! 조디 안 닥치나! 니 화장실 전세 냈나? 글구 인마! 노래를 부르려면 최신 히트곡 좀 불러라! 좀만 색끼야! 허구헌날 선사시대 때 노래만 쳐 불러제끼는 놈! 아무튼 덜떨어진 놈이 음악 취향도 구리끼리한 새끼! 똥꼬로 노래하나? 우연이 아니니까아! DNA! DNA! 좀만 한 새끼야!”

동추는 옆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는 놈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챘다. 장이수였다. 동추는 삼시간에 자기 몸이 뻗뻗하게 얼어붙는 공포를 직감하며 서둘러 비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비데가 건조 모드로 열풍을 향문에 불어 넣기 전에 얼른 바지를 끌어 올리고 화장실 문을 황급히 열어젖혔다. 하지만 장이수는 이미 모든 배변 활동을 끝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추야! 사랑하는 내 동기 똥추야! 니 똥꼬도 안 말리고 어디를 그렇게 쏘살같이 내뺨라고 하는기가? 응?”

“아 아니 난.... 갑자기 화장실 사용하느라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서둘러.”

“어허! 우리 새신랑 와그라노? 니 똥 싸는 소리 들어보니까 마야니 상태가 안 좋던데? 너겨 췌덩어리 애인이 와 잘 안 해주나? 옛그제 살모넬라 듬뿍 들어간 대장균 파스타 해주더냐?”

장이수는 무척 친한 척 동추를 끌어안으며 빈정거렸다.

“아 아니. 이수야. 어제 내가 과식한 거 같아, 아무튼 내 출근 시간이 늦어서 그런데 그만 가

볼게. 이수야.”

“어허! 이런 닝기리개호로 좃까라마이신 니주がり 씹빠빠 쌍노무 자숙의 씹탱구리 놈을 봤나? 이걸 분노해! 말어?”

장이수는 안 주머니에서 어린이용 야구 방망이를 꺼내 동추의 배꼽을 툭툭 치면서 굵은 가래를 능숙하게 동추의 신발 앞에 뱉었다. 그리고 손톱에 시커멓게 때가 잔뜩 낀 손을 동추에게 내보이며 말했다.

“이런 간신 나라의 충신 같은 놈을 보았나! 내 필히 그저께 낱히 간곡하게 하달을 했건만…. 어이 경의 요청을 이렇게도 깡그리 무시하고 내뺄 궁리만 한단 말인가? 아? 이 도롱뇽알 같이 꼬인 놈아”

“아! 그거? 이수야! 내 며칠 내로 꼭 구해주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라? 며칠 내로? 이런 배신망덕한 놈을 보았나? 왜놈의 총구에 꺼져가는 나라 살려줬더니만 호사스러운 진상품은 고사하고 오리발을 내밀어?”

“그게. 그러니까. 요즈음 약품 대장 관리가 까다로워서 예전처럼 쉽게 빼내 오기가 썸….”

“어허! 요놈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똥 놀 때 맴이랑 똥 닳고 나니 맴이 확 틀어지뿌는가베 잉? 내 너의 보육원, 유치원 동기로서 특별히 너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도 탕감해주고 원금 상환도 길게 아주 기일일게 늘려주었더니만 뭐가 어찌고 어짜? 너 그러다 진짜로 피똥 싸는 거 한번 볼겨? 잉?”

장이수는 동추의 아랫배를 야구 방망이로 콧콧 쑤시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수야, 그럼 내 오늘 밤에 꼭 구해다 주께. 이번에는 꼭 약속 지킬게. 응?”

동추는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애국열사처럼 슬픔을 가득 담아 이수에게 빌었다. 그러자 이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다정다감한 표정으로 동추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동추야, 니 그동안 마니 아팠제? 내 다 안다. 아무튼 니가 지난번에 갖다준 펜타닐 패치하고 옥시코돈 진짜 좋더라! 지기더라! 천국이 따로 없는기라 마! 알겠제? 내 맘? 그럼 오늘 밤에 까먹지 말고 온나. 사랑한데이!”

장이수는 동추의 얼굴 곳곳에 애정어린 뽀뽀를 쪽쪽 하고는 어깨는 구부정한 채, 팔자걸음으로 공원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겨진 동추도 시계를 보고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스테레오 음향으로 생생하게 전해 들은 말자는 뿔어져 나오는 분노에

치를 떨기 시작했다.

‘이수라고 했던 말이지! 어딜 감히 하늘 같은 우리 서방님에게 협박질을 하고 굴욕을 선물한 단 말이지! 내 남자의 치욕은 곧 나의 치부! 내 눈에 흠이 들어가지 전에 이런 꼴은 절대 묵고 할 수도 두고 볼 수도 없지! 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그날 오후, 말자는 이반 헌트의 수제자답게,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여 아무도 자신인 줄 모르게 변장한 다음, 공작원 전투 복장으로 완전 무장을 한 채, 동추의 병원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그리고 동추가 퇴근하고 나올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

이윽고 동추가 어기적어기적하며 병원을 나와 열차가 있는 곳을 가는 것을 목격한 말자는 은밀하게 그를 따라나섰다. 대치동 역에 하차한 동추는 대로변에서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더니 이윽고 파리 바게뜨가 일 층에 자리 잡은 강인 빌라 입구에서 서서 벨을 눌렀다. 그러자 장이수의 졸개가 문을 열고 얼굴만 빼꼼히 내더니 동추가 건넨 물건을 받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동추는 잠깐 서 있더니 이윽고 발길을 돌렸다.

동추가 강인 빌라를 떠나고 난 후, 석양이 짙은 어둠으로 변하는 순간, 말자는 강인 빌라 입구의 벨을 눌렀다. 그러자 아까 보았던 그 졸개 놈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말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뒤로 돌리고 외쳤다.

“야들아! 형님이 오늘 다방 커피 주문했나?”

“어데! 오늘 원두커피 한 뼈까리 들어왔는디 뭇 맘시 다방 커피를 주문하냐?”

그는 말자에게로 다시 고개를 돌리고 음침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와?”

“이수 있나?”

“이 년이 쳐 돌았나? 어따 대고 우리 존엄하신 형님 함자를 들먹이냐? 목숨이 열 개라도 달렸나?”

“내 목숨 니가 알아서 뭐할 끼고? 옛 사목올래? 아무튼 너거 형님인지 된장인지는 모르겠고 그놈 이순지 삼순지 하는 놈 쫓 나와보라고 해라!”

말자에 말에 빠친 졸개는 문을 벌컥 열고는 말자의 멱살을 붙곤 잡으며 외쳤다.

“이 년이 가만히 보니 사람 년도 아니고 로봇 년 주제에 뭐라고? 니 죽고 싶어서 난리 부르스 치나 지금?”



하지만 말자는 베테랑답게 침착했다. 그녀는 줄개의 손을 부드럽게 탁탁 치며 천천히 말했다.

“손모가지 성하고 싶으며 이 손 좀 놓지.”

“못하겠다면 이년아! 로봇 주제에 사람을 칠 수 있어? 니가 짝퉁이 아닌 이상 사람을 건드리기라도 할 수 있냐고? 응?”

줄개는 말자의 목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뇌까렸다. 그런데 그 순간, 말자는 놈의 낭심을 한 손으로 불끈 움켜잡으며 조용히 놈의 귀에 속삭였다.

“그래, 니 말 잘했다. 나는 짝퉁이다. 요놈아! 들으는 봤어? 명품 같은 짝퉁, 짝퉁계의 이단아, 짜가로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신 루이본퉁 님. 나의 여덟 번째 주인님이시다! 요놈아!”

줄개는 고회환이 뜯겨 나가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다 속절없이 풀썩 바닥에 내팽개쳤다. 말자는 이 기세를 몰아 성큼성큼 복도를 가로질러 홀로 들어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줄개들을 하나씩 하나씩 앞차기, 돌려차기, 내려차기, 반달차기, 비틀어차기, 뺨어 차기, 후려차기, 낚아 차기, 반달회축 차기, 안 차기, 바깥 차기, 잡고 차기, 굴러차기, 뛰어 차기, 두발당성 차기, 모뎀 발차기, 몸돌며 차기, 거둬차기를 적절히 섞어가며 쓰러트리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장이수는 토끼 눈이 되어 황급히 몸을 숨기려 하였다. 하지만 매의 눈으로 찌려보던 말자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말자는 삼시간에 몸을 부웅 날려 장이수의 다리를 낚아챈 다음, 말자의 필살기 <코브라 트위스트> 기술을 걸었다. 제대로 기술이 거린 장이수는 뚱개처럼 울부짖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너가 이수라는 놈 맞지?”

말자는 코브라 트위스트를 풀지 않은 채 장이수에게 외쳤다.

“아 아 아줌마는 도대체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네? 이것 좀 풀고 말씀하시지요? 아 아 아 아.”

“내가 누구냐고? 이놈아! 내가 그 잘생기고 늙름하신 오동추 서방님의 셋덩어리 애인이시다! 알겠느냐? 응?”

“그 그럼 그 김말자?”

“네 놈이 그래도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김말자다.”

말자는 그녀의 필살기를 풀었다. 그러자 장이수는 물 먹은 한지처럼 바닥에 첩버덕 드러누웠다. 말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종이와 펜을 획 던졌다.

”이수 네 이놈! 네가 니 죄를 알렸다?“

”네 네 말자 씨!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네 놈이 우리 서방님에게 지은 죄가 무엇이더냐?“

”제가 뭐 죄랄게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만…. 그냥 동추가 돈이 급하다길래 급전 좀 마련해 준 것 빼고는…. 딱히???“

”얼마를 빌려주었느냐?“

”이천만 원 정도.“

”그럼 너는 그동안 얼마를 우리 서방님한테서 갈취해 갔느냐?“

”그야, 저도 원금에 약간의 이자만….“

”아닙니다. 정확히 1억 오천구백칠십 사원 갈취해 갔습니다. 그동안.“

말자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검은 뿔 태 안경을 쓰고 호리호리한 줄개 녀석이 아는 척하며 그녀에게 장부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다른 장부를 보여주며 신이 난 듯 외쳤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동추에게서 모두 23회 편취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그날 밤 말자는 동추에게서 결국 한 소리 듣고 말았다.

”말자 씨! 도대체 밤에 어디를 쏘다닌 겁니까? 저녁도 안 해 놓고서? 글구 얼굴에 화장은 그게 됩니까? 말자 씨의 매력은 청순미란 말입니다. 화장기 없는 생얼. 알겠어요?“

말자는 그런 동추를 달래기 위해, 인류 최고의 명작 옥보단과 금병매에 기록된, 고급 난이도의 특화된 밤 기술을 선보였다. 그리고 동추가 잠들자 침대를 살며시 빠져나온 말자는 장이수에게서 돌려받은 돈과 앞으로 절대로 동추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자필로 서명한 각서를 천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모처럼 맞이하는 주말 저녁. 말자가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정성을 쏟아 조물조물 문지르고 깨끗하게 세 번 씻은 닭발에 화끈하게 매운 불닭 볶음 소스로 버무린 닭발 볶음에 자몽 소주 몇잔 걸친 동추는, 알뜰뜰한 가운데 서둘러 이부자리를 깔고 느긋한 자세로 드러누워 온라인 시네마 채널 <시플릭스>를 이리저리 검색하기 시작했다.

동추가 좋아하는 장르는 고전영화. 대표적으로 아바타 시리즈와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한다. 비록 그래픽이 허접하고 특수 효과는 구리지만 나름대로 요즈음 영화에 비해 인간미가 있다고 그는 느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로맨틱한 영화에 관심이 쏠렸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100년도 더 된, 1996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그는 말자를 불러 옆에 누이고 부드러운 바리톤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하지만 말자는 그다지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눈이 따갑도록 지겹게 영화를 봤던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주인은 은퇴한 영화감독인 <봉준오>였다. 그는 한 때 <기생오라비>라는 영화로 칸 황금 대추야자 상, 아카데미 작품상을 타면서 스타 감독 반열에 올랐지만, AI가 제작하는 영화에 밀려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영화제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수많은 관객의 갈채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던, <수상의 추억>을 잊지 못한 그는, 밥만 먹었다 하면 허구한 날 인간이 만든 영화 보기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말자가 그에게 팔려 가서 한 일은 딱 하나, 영사기 관리 및 운전이었다. 그러니, 보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술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영화는 하도 많이 봐서 앞으나 서나 머릿속에 대사가 뱅글뱅글 돌다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

영화가 끝나고 엔딩 자막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누워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자가 벌떡 일어나 화장대에 있는 뽑아 쓰는 티슈를 연속으로 다섯 장 뽑더니 아주 큰 소음을 내며 코를 풀었다. 그 소리에 동추는 번쩍 눈을 뜨고 잠을 깬다. 말자는 바셀린이 한 무더기 묻은 티슈를 돌돌 말아 휴지통에 버렸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자의 눈에 말뚱보다 더 큰 눈물이 푹푹 떨어지고 있었다.

“마 마 말자 씨!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자다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건가요?”

“아 아니에요. 서방님. 그냥 영화가 너무 슬퍼서요.”

“여 영화가요? 우 우리가 같이 본 영화 말인가요?”

“네. 서방님. 서방님이 십 분 만에 잠든 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말이에요.”

“아! 그 올리비아 핫세 나오는 영화?”

“어이구 저 얼굴이 식충이! 그건 1968년 영화고!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1996년 작!”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죽지 않나?”

“에휴! 저 아타카마 사막보다 더 건조한 인간! 안타깝다! 저러니 그림이 딱 나오잖아, 아이엠 솔로예요. 감성 불가! 오동추씨! 그러니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한 애절한 추억 덩어리는 여태껏 한 번이라도 가져보시기는 하셨나요?”

“말자 씨!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시나요! 저도 알고 보면 로맨스 가이였어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첫사랑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문득 날이 굶거나 햇별이 지나치게 따갑거나 바람이 소심하게 가로등을 흔들면 그때마다, 이 가슴 한 켠 저 깊숙한 곳에 묘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리움이 나를 물들이고…”

“오! 동추씨! 멋지다! 그래서?”

“아!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물 흘러내리는 못다 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오! 멋진 남자! 동추씨! 너도 사랑을 아는구나! 그런데 잠깐…. 어디서 마니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혹시 노래 가사 아냐???”

그 순간, 동추는 헛기침을 하며 무척 졸린 듯 길게 하품을 하고 돌아누웠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첫사랑은 신보라라고 해요.”

\*\*\*\*\*

오동추가 신보라를 처음 본 건, 그의 나이 17살 때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강남 지구는 나날이 슬럼화되고 있었다. 온갖 종류의 범죄자, 마약쟁이, 루저, 찌질이, 가난뱅이들이 모여들었고 제대로 된 인간들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동추가 사는 집도 입주민이 모두 떠난 텅 빈 다세대 빌라였다. 그러니 늘 조용했다. 가끔 동네 양아치들이 몰래 기어들어 와 환각제 흡입하고 킁킁거리다 돌아가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낮고 조용하고 쓸쓸하기 짝이 없던 빌라가 갑자기 애들 소음으로 인해 떠나갈 판이었다. 낮잠을 즐기던 동추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반쯤 뜨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창가를 내다보다 그만 눈을 번쩍 뜨고 말았다. 열 명쯤 되는 애들이 조잘대며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처녀가 눈이 부시게 이뻐기 때문이었다. 그는 입을 헤벌쭉하게 벌리고 한동안 넋이 나간 채 그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지금 뭘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는 서둘러 세면을 하고 옷매무시를 단정히 한 다음 그들을 도우러 달려 나갔다.

신보라는 오동추와 동갑이었다. 아홉의 동생을 두었고, 그녀의 부모는, 원초적 자연의 삶을 신봉하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출산 때를 제외하고는 늘 떠돌아다녔다. 보라도 열다섯 살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 돌아다녔다. 하지만 두 명의 동생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한곳에 정착하고 동생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보라가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동생들 뒷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몇 번의 야간도주 끝에, 집세가 거의 없는 이곳까지 온 것이다.

느긋하지만 외롭기 짝이 없는 삶을 영위하던 동추에게 보라의 등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첫눈에 쫄딱 반한 그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보라의, 보라에 의한, 보라를 위한 삶 속으로 급속히 인생의 목적을 전환하였다. 보라의 아르바이트 알아봐 주기, 보라 동생들과 놀아주기, 보라 동생 숙제 도와주기, 어린 보라 동생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기 등등. 얼핏 보면 보라와 동추가 부모인 것처럼 보였다. 사실 부모나 마찬가지였다. 동추가 보라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것만 빼면.

이듬해, 동추와 보라가 열여덟 살로 성인이 되었을 때, 동추는 순전히 보라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대 진학을 미루고 <버거퀵>에서 파트타임 업무를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동추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직장에서도 늘 그녀를 볼 수 있었고 집에서도 항상 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보라도 동추의 사랑을 차츰차츰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벼운 키스와 스킨십이 동추를 행복의 나라로 이끌었다.

적어도 그날,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날은 목요일 오후, 주말이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 매장에는 손님이 가득했다. 동추는 정신없이 햄버거를 만들었고, 보라는 설 새 없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다. 그런데 갑자기 카운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추가 살짝 들여다보니, 웬 중년 여성이 얼굴을 붉히며 막무가내로 매니저를 찾고 있었다. 잠시 후, 뚱뚱한 매니저가 혈레벌떡 달려가더니 그 여인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고는 다짜고짜 보라를 끌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동추는 매니저 사무실 근처를 서성이며 모든 감각을 이용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굳게 잠긴 문, 커튼으로 가려진 창으로 인해 그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안에서 나는 소리뿐이었다.

잠시 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봐도 보라의 울음이었다. 동추는 급히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날렸다. 하지만 묵묵부답. 동추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안에서 틀림없이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동추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112를 누르고 말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경찰들의 어깨 너머로 동추는 보라를 찾았다. 그녀는 벌거벗은 상태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그 순간 동추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경찰과 함께 나오는 매니저의 면상을 프라이팬으로 냅다 갈겨 버렸다. 픽하며 쓰러지는 똥땡이 매니저. 동추는 다시 한번 그놈을 가격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높이 들어 올렸다. 하지만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매장을 찾은 중년 여성이 자기 지갑이 도난당했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그녀를 서빙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보라였다. 매니저는 보라를 끌고 가 몸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음흉한 매니저 놈은 보라에게 옷을 모두 벗을 것을 명령했다. 속옷까지 모두. 그리고 구석구석 살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다. 매니저의 불알친구였던 형사는 그를 훈방 조치하였다. 하지만 동추는 폭력혐의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다. 그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보라는 딱 한 번 면회를 왔다. 그녀는 원망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바보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우리 동생이 굶어 죽을 판인데, 그까짓 내 몸 한번 보여주면 뭐 어때서?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 준데? 그 잘난 수치심이 쌀 한 톨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냥 참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 바보 멍청이야! 너 감옥 가고 나 잘리고! 너 때문에 이 동네 방방곡곡에 소문이 짝 퍼져 이젠 아무 데도 날 받아 주질 않아! 알겠어? 이 바보야!”

출소 후, 동추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빌라는 다시 암울한 침묵 속으로 잠겼다. 동추는 한동안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는 우연히 미튜브(MeTube) 광고 영상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환락의 도시, <라도베가스>로 유명한 도시, 여수의 한 카지노 광고에서 그녀는 알팍한 비키니를 걸친 채,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봉춤을 추고 있었다. 짙은 화장으로 잠시 긴가민가했지만, 틀림없이 보라였다. 동추는 그 길로 곧바로 여수를 찾았다. 그리고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그녀를 먼발치에서 발견하고 웨이터에게 그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No> 였다.

“다른 여자는 되지만 저 여자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보스 애첩입니다. 잘못 건드렸다면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집니다. 조심하세요. 손님.”

“보스라면?”

“유명하신데 잘 모르시나요? 진실의 방 마동식 회장님이라고.”



박대기 기자

어느 날 저녁, 동추는 TV를 보다 말자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말자 씨! 내일부터 JMBC에서 <꿀뚜기 게임> 44시즌 방영한대!”

“꿀뚜기 게임? 아! 그 돈 걸고 루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다 다 죽는 거 그거?”

“마저! 그거야! 정말이지 잔인하지만 흥미로워죽겠어!”

“나는 그거보다는 <공주의 게임>이 더 좋던데.”

“공주의 게임?”

“그래, 왜 그거 있잖아! 불 뿜는 드래곤 타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노랑머리 여자!”

“아! 그거, 그거 미튜브(MeTube)에 예고편 떴어! 프리미엄 회원은 30% 깎아준다던데”

“걱정 마! 서방님! 내가 누구니? 내가 아주 가뿐하게 불법 다운로드 받아 줄게. 돈 아껴!”

“허걱!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혹시 또 예전 주인이 어나니머스 해커 출신이었던 거야?”

“오호! 서방님의 이 놀라운 직감력! 마저! 나의 6번째 주인은 한때 해커계의 큰손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지!”

“와! 흥미로운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그 해커 주인?”

“어떻게 되긴? <큰행복 상호 신용금고> 전산망 털다가 공익 요원에게 발각되어 지금 교도소에서 콩밥 먹고 있지!”

“어떡하다가?”

“똑똑한 놈이 멍청한 착각을 한 거지. 그 신용금고 관리자 암호가 1234이었거든. 그런데 바보 같이 여기에는 틀림없이 함정이 숨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끽대다 피시방 옆자리에서 <피파온라인> 하던 놈에게 발각된 거지”

“헤헤헤 웃긴다! 그래서 그 신용금고 관리자 암호 바꾸었데?”

“응, 1111로”

그런데 그때, TV 속 드라마가 갑자기 중단하더니 손석히 앵커가 등장했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조직 폭력배 조직인 <진실파>의 두목 마동식이 조

금 전 라도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현지에 나가 있는 <박대기> 기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네, 저는 지금 라도베가스 경찰청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경찰청장의 공식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요약하자면 진실파 두목 마동식은 전국에 걸쳐 수십 군데에 <진실의 방>이라는 불법 퇴폐 유희 업소를 차려놓고 그동안 수백억의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부하들에게는 헬멧 폭행, 목덜미 누르기, 컷볼 쥐어뜯기, 낭심 쥐어짜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저질렀으며, 수백 건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및 수십 건의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협박, 체포와 감금 및 범인 은닉, 위증과 무고, 도박과 위조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의 혐의가 모두 입증된다면 마동식은 최고 징역 964년이라는 단군 이래 최고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박대기 기자, 마동식은 지금까지 술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처럼 썩썩 법망을 빠져나가 <마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그를 구속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지 경찰의 의견이 어떠한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마동식은 그동안 그의 악한 영향력 아래 정관계 로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공갈, 협박, 회유로 핵심 증인들의 입막음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증거들은 모두 그의 최측근 인물들이 전담함으로써 그동안 재판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현빈 제 1차장 검사를 단장으로 한 검경 공조 수사단은 수년간에 걸친 은밀한 내사와 비밀 침투 요원을 동원하여 이번에 핵심 증거를 가진 세 명의 증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안전 가옥에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핵심 증인 중에는 마동식의 최측근뿐만 아니라 그의 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현지 언론은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도베가스에서 박, 대, 기 기자입니다.’

‘마동식의 애인이라고?’

그 순간, 오동추는 신보라를 떠올렸다.

\*\*\*\*\*

그로부터 한 달 후, 마동식 재판 3일 전. 강원도 레고랜드 코리아 호텔 옆 한 목욕탕이 화염에 휩싸인다. 박대기 기자는 숨 가쁘게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화재 현장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 긴급히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길은 30분 만에 잡았습니다. 다행히 이 목욕탕은 폐업한 상태였고요,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마이크를 데스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 아아아 잠깐만요. 국민 여러분!”

박대기 기자는 귀에 꽂힌 이어폰을 손가락을 꼭 누르며 뭔가에 집중하듯 땅바닥을 한차례 응시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고 소식을 이어갔다.

”아! 방금 아주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곳에 마동식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은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실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동식의 재정을 담당하던 핵심 증인이 이곳 목욕탕에서 때밀이와 함께 나체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은 1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책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동식 재판 이틀 전. 공포 체험 테마파크 <워킹 데드 체험관>이 화염에 휩싸인다. 박대기 기자는 혈떡이며 현장으로 달려가 생동감 있는 화재 현장을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 바로 옆 골목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길은 10분 만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이 테마파크는 폐점한 상태였고요,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마이크를 데스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 아아아 잠깐만요. 국민 여러분!“

박대기 기자는 귀에 꽂힌 이어폰을 손바닥으로 꼭 누르며 뭔가에 집중하듯 허공을 한차례 응시하더니 이윽고 카메라를 째려보며 말을 이어갔다.

”아! 방금 아주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또 한 번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곳에 마동식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은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야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동식의 법률을 담당하던 핵심 증인이 이곳 테마파크에서 좀비로 분장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로써 마동식 재판의 핵심 증인은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은 2시간 빠른 뉴스 7시 뉴스책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동식 재판 하루 전. 제주도 형돈 흑돼지 농장이 화염에 휩싸인다. 박대기 기자는 저가 항공 <에어제주>를 이용해 총알같이 현장으로 달려가 짜릿한 화재 현장을 신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 근처를 지나가던 소방관들에 의해 불길은 4분 만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이 흑돼지 농장은 종사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요,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마이크를 데스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 아아아 잠깐만요. 국민 여러분!“

박대기 기자는 귀에 꽂힌 헤드폰을 손끝으로 살짝 누르며 뭔가에 집중하듯 한라산을 한차례 응시하더니 이윽고 카메라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 방금 아주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곳에 마동식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은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야말로 실로 분하고 원통하고 껄름칙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동식의 애첩이었던 핵심 증인이 이곳 형돈 흑돼지 농장에서 흑돼지로.... 아 아 아 잠깐만요. 국민 여러분! 네, 네. 네. 아 희소식입니다. 이곳에서 사망한 것은 돼지로 밝혀졌습니다. 증인은 무사히 빠져나와 현재 제3의 안전 가옥에서 머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죽은 거는 흑돼지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은 3시간 빠른 뉴스 <6시 내 고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요미는 날씬해

마동식 재판 당일 오전 6시.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여러 대의 방탄 차량은 하이패스 구간을 통해 빠르게 지나간다. 방탄 차량 앞뒤에는 차륜형 장갑차가 동서남북으로 호위를 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이 들을 취재하려는 방송국 차량 수십 대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하늘에는 여러 대의 중무장한 유로콥터 타이거 헬기와 방송 장비를 탑재한 각 방송국의 플라잉 카들이 가득하다.

플라잉 카에 탑승한 박대기 기자는 조종사 옆에서 침을 튀기며 열나게 현장 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동추와 말자도 벌써 잠에서 깨어 TV에서 펼쳐지는 역대급 규모의 수송 작전에 빠져 들고 있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 국민 초미의 관심을 받는 증인 호송 작전의 장대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사형환 부장판사 주도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발아래 보이는 고속도로에는 여러 대의 동일한 모습의 방탄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 차량 중 한 곳에 오늘 마동식 재판에 참석할 유일한 핵심 증인이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흥건히 흘러내릴 정도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마동식 피고와 연루된 부패한 정치인과 국회의원,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편 언덕 너머, 따가운 아침 햇살을 등에 업은 한 무리의 전투 드론이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상에 바짝 붙은 채 비행하며 천천히 은밀하게 학익진 전투 대형으로 호송 차량을 둘러싸고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마꾸라지 마동식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구속수감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증인 보호에 실패하여 대한민국을 어둠의 자식들이 지배하는 한심한 세상으로 계속 내버려 둘지? 정말이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긴장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대소변이 자꾸 마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 꼭 참고 생중계를 이어갈 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팔약근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추와 말자도 서로를 꼭 안은 채, 혹시라도 박대기 기자가 플라잉 카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 한편, 서울 구치소에 갇힌 마동식도 TV 중계 화면을 지켜보며 톨마니에게 은밀한 공격 암호를 보냈다.

”마요미는 날씬해.“

그의 신호에 따라 은밀히 숨어 있던 드론들이 일제히 공중으로 솟구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아직 감지하지 못한 박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떠들어 대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AP통신, 로이터 통신, AFP, UPI 통신을 통해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마동식의 핵심 증인이 그의 애첩이자 스트리퍼로 활동하는 <신보라>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식 재판의 핵심 증인이 신보라 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동추는 신보라라는 말에 벌떡 일어났다. 설마설마했는데 바로 그녀였다. 덩달아 놀란 말자도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동추를 쳐다보며 물었다.

”서방님! 그러면 저 신보라가 그 신보라인 건가요? 서방님 첫사랑?“

동추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내 영원한 첫사랑이 마동식의 증인이라니!’

그 순간, 적의 드론이 일제히 굉음을 내며 하늘에 떠 있는 헬기와 플라잉 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드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관총이 하늘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를 보는 착각에 빠지게 했다. 몇몇 가미카제 드론들은 헬기 몸통에 그냥 들이박으며 폭발하기도 했다. 방송국 플라잉 카들도 예외 없이 공격받았고 몇몇 기자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빴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기자 중의 기자. 대기자 박대기는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팔약근을 움켜쥐고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투 드론들이, 대략 127대 정도의 드론들이 일제히 저희 경호 헬기와 방송용 차량을 급습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네, 한국 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투가 지금 바로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신변의 안전이 심하게 의심스러운 처지에 놓여있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한 범죄 현장을 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황은 점점 마동식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 아귀처럼 달려드는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호 헬기들이 퍼덕퍼덕하다 결국 맨땅에 박혀 화염을 내며 불타올랐다.

이윽고 하늘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판단한 드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의 차량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마치 진주만 기습 공격처럼 드론은 대열을 지어 연속으로 하강하며 방탄차와 장갑차에게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장갑차도 반격을 해 보지만, 드론의 숫자가 너무 많아, 마치 죽여도 죽여도 좀비처럼 달려드는 메뚜기떼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박대기 기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국민 여러분! 상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저희 군의 호송 장갑차들이 하나씩 하나씩 화염에 휩싸이며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촉, 누란지위, 백척간두, 초미지급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마동식의 재판에 증인을 앉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국민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경찰과 군 관계자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고속도로 나들목 곳곳



에 숨겨두었던 예비 장갑차들이 일제히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안티 드론건>. 실탄이 아닌 전파공격으로 정밀 타격으로 드론을 하나씩 하나씩 격추하기 시작했다. 전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전되기 시작했다. 하늘을 별떼처럼 비행하던 드론들이 마침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마동식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기흥 나들목 근처를 막 지났을 때였다. 수십 명의 폭주족이 검은 바이크를 몰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나타났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장갑차 꿈무늬에 달라붙어 오토바이에 탑재한 대전차포를 발사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장갑차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광경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박대기 기자는 다시 흐느꼈다.

”국민 여러분! 정말이니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더니... 우리 아군의 전세가 삽시간에 다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아! 신이시여!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말자가 별떡 일어났다. 그리고 슬픔에 젖어 있는 동추의 손을 획 낚아챘다.

”동추야! 가자!”

”어디를?”

급작스러운 말자의 행동에 어안이 병병한 동추가 물었다.

”어디기는? 경부고속도로지! 신보라 구하러 빨리 가자!”

”뭐라고?”

“뭐해? 이 바보 멍청이 머저리 얼간이 방통이 천치 뺨대가리 저능아같은 멍텅구리야! 너가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라며? 너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너 목숨보다 소중한다면? 너의 영원한 로망이자 간절한 바람이며 끝없는 끌림의 종결자라며? 그럼 구해야지! 구하러 가야지! 이 무뇌충아!”

말자는 씩씩거리며 지하 주차장으로 달렸다. 동추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지하로 내려간 말자는 스스럼없이 운전석에 올라타고 시동은 냅다 걸었다. 그리고 뒤따라온 동추를 쳐다보며 크게 외쳤다.

“부가티야! 너만 믿는다!”

“말자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고물 딱지 차로 저놈들을 어떻게 따라잡아? 응?”

“안전벨트나 매! 이 썸쟁아!”

말자는 수동변속기를 한꺼번에 7단에 넣고 악셀을 깊게 꺾으며 핸들을 심하게 꺾었다. 텅 빈 주차장이 화들짝 놀란 듯 찢어지는 소리를 울부짖으며 건들거렸다.

“렛츠 고!”

말자의 신호탄과 함께 슈퍼카는 성난 황소처럼 쓰레기로 가득한 지하 주차장을 헤치고 삼시간에 타원형 출구를 돌아 지상으로 돌진했다. 오랜만에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하늘. 그 속에서 느긋하게 선댄을 즐기던 주민들이, 느닷없이 등장한 코발트 색 괴물에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부가티는 굉음과 함께 좁고 낡은 주택가 도로를 빛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우씨! 더럽게 눈부시네! 야! 오동추! 글로브 박스 열고 선글라스 좀 꺼내 줘!”

“어디?”

오동추는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말자를 쳐다봤다.

“이런 반푼이 같은 지진아야! 너 앞에 있는 서랍 말이야! 그거 열어봐!”

오동추는 엄청난 차 속도에 덜덜거리는 손으로 겨우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왕창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권총, 칼, 소형 도끼, 망치, 전자충격기, 화약 등등 온갖 종류의 흉기가 가득했다. 어안이 병병한 동추는 그녀를 바라봤다.

“말자야! 이게 도대체 뭐니?”

“뭐긴? 우리 아파트 내 굴러다니는 거 내가 모아 냈지.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말이야. 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가져! 아! 그래! 권총이 좋겠다. 내가 그 폭주족 똥짜바리에 바싹 붙일 테니까 너가 그놈 대가리에 한 방 멋있게 날리라고! 알겠지? 서방님!”

동추는 기가 차고 코가 막혀 말문이 탁하고 막히고 말았다. 권총은커녕 새총도 한번 안 잡아본 사람에게 사격하라니? 그것도 초스피드로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아무튼 동추가 낮이 나간 상태로 조수석에서 멍하니 있는 사이 자동차는 빠르게, 쓰레기 가득한 강남대로로 접어들었다. 차 주변으로 오만 잡동사니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오케이! 이제 한번 제대로 밟아 보자고잉!”

선글라스를 폼나게 걸친 말자는 신이 난 듯 입을 헤 벌리고는 빠삐용의 마지막 대사를 크게 외쳤다.

“이놈들아! 내가 간다!”

말자는 상단 패널 우측에 있는 보호 장치를 풀고 붉은색 제트 터빈 엔진 버튼을 꼭 눌렀다. 그러자 강력한 제트 스트림이 테일 파이프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되며 차는 거의 날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동추 옆으로 다른 차들이 획 획 하며 지나가는 게, 마치 레이싱 게임 속 장면처럼 느껴졌다.

한편, 여전히 말자의 행동에 의구심으로 가득한 동추는 조심스레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하지만 김말자, 잘 들어봐봐. 우리 차는 구닥다리라 지상으로밖에는 다닐 수 없잖아. 만약 저 놈들이 플라잉으로 변신하여 날아가 버리면 우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될 텐데…”

“어휴! 닭대가리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서방님아! 하늘을 봐봐! 하늘을!”

그녀의 말대로 동추는 하늘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수백 대의 경찰 드론이 현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 쪽쪽 놈들이 하늘로 나는 순간, 그날이 그놈들의 제삿날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마동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바이크를 보낸 거야! 그 나쁜 놈이 똥똥이처럼 띠똥띠똥하니까 대가리 나쁜 놈으로 보이지? 아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놈이 <진실의 방> 보스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군림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영악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감히 그 몸으로 미꾸라지 새끼처럼 범망을 쏙쏙 빠져나갈 수 있었겠어? 안 그래? 서방님아!”

“그래, 그건 너 말이 맞는 거 같아…. 하지만…”

“하지만 뭐?”

“설령 우리가 신보라에게 접근했다고 치자…. 하지만 주변에는 완전 무장한 놈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우린 기껏해야 낡아 빠진 권총뿐이고…. 게다가 나는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지 그건 니말이 옳긴 옳아. 그래서 서방님아! 내 하나만 묻자. 해태월드 자이로 드롭 타봤지?”

“그건 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이 돌대가기 떨빵아!”

“타봤긴 타봤지. 그런데 왜?”

“기분이 어땠어?”

“그거야. 뭐, 그냥 싱거웠어.”

“그렇지? 괴천 서울랜드 스카이엑스는 어땠어?”

“그것도 뭐. 그냥 그랬어. 아무 느낌이 없었어.”

“자이로스윙은?”

“아씨! 이제 그만 물어봐! 다 똑같아! 그냥 싱거웠어!”

“그거 봐! 너는 너거 아버지 오달수 판박이라니까! 내 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 붕딱아! 너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야!”

그 순간, 말자는 핸들을 급히 틀더니 코스트코 양재점 입구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스프링처럼 튀어나와 동추에게 외쳤다.

“야! 이제 너가 운전해! 내가 총 쏠 테니! 알겠지!”

동추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는 동안 말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한 멍멍한 아줌마가 자기 트렁크에 킁킁거리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싣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더니 갑자기 물건을 갈취하여 냅다 달려 부가티 뒷좌석에 꾸겨 넣고는 동추에게 큰소리로 외쳤다.

“서방님! 빨리 달려!”

동추는 말자의 위압감에 짓눌려 악셀을 힘차게 밟았다. 그리고 말자에게 물었다.

“저 물건들은 그냥 식료품 같은데. 저건 왜 훔친 거야?”

말자는 자기 허벅지 저장고에서 총알을 꺼내 총에 장전하며 능름하게 말했다.

“특수 공작원 계명 제13장 7절. 무기가 빈약할 시, 손에 잡히는 아무 물건이나 활용하라. 알간? 소심한 서방님. 곧 저 물건들의 사용처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여. 조금만 기다리라고 잉?”

포스와 함께하길!

마침내 부가티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한동안 운전을 안 한 동추였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서 자마자 까닭 모를 자신감이 불타올라 악셀을 꾸욱 밟으며 동시에 제트 엔진 버튼을 힘차게 눌렀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 제트기처럼 쪽쪽 앞으로 내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추는 한 무더기의 폭주족들에게 쫓기고 있는 방탄차를 목격하였다. 그는 아주 세련된 솜씨로 핸들을 꺾어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 하행선에서 상행선으로 갈아탔다. 그리고 어금니를 꼭 다물고 힘차게 바이크를 추적했다.

한편,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대기 촬영팀은 느닷없이 등장한 동추의 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 증인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방탄차들이 한 대씩 한 대씩 폭주족들에 의해 파손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구형 모델의 화석 연료 차 한 대가 난데없이 나타나 오토바이 꿈무니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과연 저 차는 아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자못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아 아 방금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저 차량을 조회해 본 결과, 저 차량의 소유주는 전설의 카레이서인 오달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달수 프로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지가 이미 수십 년째인데 저렇게 나타나다니. 마치 영화 <백투더퓨처>에 등장하는 <드로리안> 같습니다.”

이윽고 맨 뒤에 달리고 있는 바이크를 따라잡은 말자는 큰소리로 외쳤다.

“서방님! 오토바이 옆에 바짝 붙이세요!”

동추가 능숙하게 바이크 옆으로 다가가자, 말자는 뒷좌석으로 가더니 쇼핑 비닐 속을 헤치고 오투기 토마토케첩을 하나 집어 들더니 창문을 반쯤 열고 바이크 라이더에게 바로 뿌려 버렸다. 그러자 녀석은 순간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핸들을 몇 번 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몸이 공중으로 붕 떠드니, 마치 아사다 마오의 트리플 악셀처럼 데굴데굴 굴러 도로 바닥에 철퍼덕 떨어졌다.

“앗싸! 한 놈 잡고!”

동추는 말자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다른 라이더에게도 차를 살살 붙였다. 말자는 이번에는 녀석의 헬멧에 밀가루 한 봉지를 냅다 쏟아부었다. 그놈도 마찬가지로 비실비실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멋있게 박고, 마치 양학선 도마의 스카라트리플처럼 절묘한 비틀기로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바닥에 착지와 동시에 뒤따라오던 트럭에 그만 깔리고 말았다.

“앗싸! 두 놈 잡고!”

세 번째 놈은 국산 콩 100% 콩기름으로, 네 번째는 아깝지만, 참기름으로, 다섯 번째는 뽕꿀어로, 여섯 번째는 몽고 간장으로, 일곱 번째는 한우 갈비 세트, 여덟 번째는 파인애플로 대가리를 맞추어 쓰러뜨렸다.

이 장면을 박대기 촬영 팀은 생생한 고화질 화면으로 실시간 중계를 이어갔고 이를 지켜보던 전 국민은 뜨거운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말자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 폭주족들은 부가티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점점 에워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식료품으로 저들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말자는 비장의 무기 <데린저 피스톨>을 양손에 부여잡고 동추에게 외쳤다.

“뚜껑 열어!”

“뚜껑? 무슨 뚜껑?”

동추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어리둥절한 채 말자를 슬쩍 쳐다봤다.

“이 얼간이 천치 숙맥 멍텅구리야! 부가티 지붕 열란 말이야!”

“아하! 오키!”

슈퍼카 지붕이 열림과 동시에 말자는 영화 <원티드>에서 <안졸리나 졸러>가 하던 식으로 지붕 위에 납작하게 누운 채 사방에서 달려드는 폭주족들을 한발 한발 저격하며 쓰러트리기 시작했다.

“앗싸! 미션 클리어! 서방님 이제 뚜껑 닫아!”

“오키!”

말자와 동추는 환상의 콤비를 보여주며 적들을 바스러뜨렸다. 이에 놀란 폭주족들은 속도를 줄이며 멀찌감치 떨어진 채 졸졸 따라왔다.

“서방님! 이제 방탄차에 가까이 붙이세요. 신보라가 어느 차에 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았당게.”

동추는 차를 가속하며 일렬로 달아나고 있는 방탄차 옆을 스치며 차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검은 선텐으로 가려진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씨! 말자야! 차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영덩이 보관소에서 선글라스를 하나 꺼내 척 걸쳤다.

“서방님! 걱정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운전만 잘하세요. 저에게는 소수의 고급 첩보원들만 보유한 특수 투시 안경이 있으니깐요. 하하하.”

그녀는 녀 대의 방탄 차량을 쪽 훑어보더니 이윽고 외쳤다.

“저겁니다! 서방님! 2번째 차량! 차량 번호 <마 4469>. 저기에 신보라가 있어요!”

하지만 말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2대의 방탄차가 화염에 휩싸이며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렸다. 말자가 뒤 돌아보니 할라데이비슨 스포스터 울트라 급 바이크를 탄 폭주족 3명이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다.

“우씨! 존간나 새끼들! 유도 미사일을 쏘고 있네!”

말자는 동추에게 있는 힘껏 크게 외쳤다.

“서방님! 신보라 차 뒤에 바짝 붙이세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하지만 동추가 운전대를 틀어 신보라가 탄 방탄차 뒤에 붙이려는 순간, 방탄차는 '핑'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간 뒤, 도로 옆 갈대숲으로 드러누운 채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동추도 급히 운전대를 틀어 그 방탄차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짧은 숲길이 끝나자 내리막길이었다. 신보라를 태운 방탄차는 뒤집힌 채,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동추도 그 뒤를 따라 내려갔다.

마침내 방탄차가 물가에 멈추었다. 동추의 차도 방탄차 옆에 멈추었다. 동추는 삼시간에 운전석에서 내려 신보라를 구하기 위해 뒤집힌 방탄차의 창을 부수고 보라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자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두 명의 폭주족이 바로 코앞까지 따라오고 있었다. 말자는 가슴 저장고에서 진짜 비장의 무기 <제다이 광선검>을 꺼냈다. 그리고 외쳤다.

“포스와 함께하길!”

말자는 달려드는 바이크를 광선검으로 삼시간에 획획 하며 두 동강이 내 버렸다. 이 광경을 본 라이더들은 걸음아 날 살리라 하며 도망쳤다. 말자는 광선검을 거두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뒤, 서둘러 부가티 운전석에 뛰어올라 악셀을 꾸욱 밟았다.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선 부가티. 말자는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한 무리의 바이크 라이더들. 그들은 장착한 온갖 종류의 무기로 달아나는 슈퍼카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자는 용단처럼 쏟아지는 폭격 속에서도 용케 씩씩 미꾸라지처럼 잘 피하며 도로를 달렸다.

마침내 고속도로를 지나 도시로 접어든 말자와 라이더들. 그들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쫓고 쫓기는 물고 물리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 나갔다.

그런데 아뿔싸! 도시로 점점 더 깊어 들어갈수록 늘어나는 차량 행렬. 결국 부가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목전에 둔 사거리에서 그만 갇히고 말았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차들 사이를 쭉



속 빠져나오며 점점 거리를 좁혀 오더니 마침내 회심의 유도 미사일 발사. 결국 부가티는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다. 말자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나왔지만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앙상한 철골 뼈대가 드러난 채,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만 풀썩 쓰러졌다. 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행인은 망연자실하며 참혹한 말자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마동식 졸개들의 행패에 분개했다.

\*\*\*\*\*

오전 11시.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모든 소식을 접한 검사팀은 허탈한 상태로 고개를 떨구었고, 피고 마동식 또한 소식을 전달받았으므로, 거만한 자세로 히죽히죽 웃으며, 마치 법정에서 소풍 나온 듯 즐거워했다. 방청석 또한 초상집 분위기이고 판사도 이 상황이 무척 싫은지 볼멘 목소리로 재판을 능기적능기적 진행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홀연히 한 줄기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식식 거리며 슬픈 방청객을 애무하던 찰나, 문득 재판정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눈 부신 햇살을 등에 업은, 동추의 부축을 받은 신보라가 절뚝거리며 걸어들어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 마동식, 마동식 졸개, 일반인, 기자, 속기사, 진행요원들은 화들짝 놀라며 이게 꿈인지 생인지 자신의 불을 꼬집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신보라를 탄 방탄 차량이 전복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동추가 달려간 사이, 말자는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혼자 슈퍼카를 몰았다. 그리고 말자가 적들에게 피격당하여 쓰러질 즈음, 팔약근의 압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박대기 기자는 갈대가 심하게 우거진 풀숲에 은밀히 착륙하여, 궤변이 선사하는 복잡미묘한 쾌락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부끄러운 자세를 지켜보며 가까이 접근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동추와 보라였다. 화들짝 놀란 박대기 기자는 뒤처리도 잊은 채, 바지를 찻싸게 올리고 동추를 도와 보라를 플라잉 카에 태우고 빛의 속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달려 온 것이었다.

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다.

\*\*\*\*\*

신보라의 증언에 따라 마동식과 연루된 정치인, 언론인, 고위직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의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오고 마동식 졸개들은 소리 소문 없이 모두 해외로 뺏스런했다. 한편 오동추는 무척 바쁜 일상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성 병원에 입원한 신보라를 돌보고, 길 건너 희찬 빌딩 1층, 단무지 로봇 재활 센터에 입원한 말자를 간호하고, 맞은편 오거리 뒤쪽, 우성 상가 내 스톡 직영 <준호 클래식 카 수리 센터>에 맡겨진 부가티도 알아봐야 했다. 그는 시계 봉알처럼 열심히 그 세 곳을 들락날락하면서도 동추의 얼굴을 알아본 수많은 행인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2주가 눈 깜짝할 사이 흐르고 퇴원한 신보라, 김말자는 동추가 모는 부가티를 타고 흥

민빌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전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파파라치 들이 북새통을 이루었고 이미 성인이 다 된 신보라의 동생들도 오래간만에 모두 모여, 주민들과 함께 연일 축제가 펼쳐졌다.

한편, 침대는, 여전히 다리에 깁스를 한 신보라와 새 스킨을 입힌 말자가, 아직 접착제가 굳지 않았다는 핑계로 차지하여, 동추는 할 수 없이 소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추는 너무 행복해서 늘 헤죽거리며 지냈다.

말자의 스킨은 단무지 회장의 통 큰 선심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전지은 19> 모델로 바뀌었다. 말자는 팔딱팔딱하고 낭랑한 열아홉 살의 전지은으로 바뀐 자기 얼굴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허구한 날 거울만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동추가 보기에는, 육덕진 몸매와 부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동안 44살에 익숙해 있다 보니 그다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렇게 멋있고 보람으로 가득한 날들이 며칠 더 흐른 어느 날 아침, 동추는 소파에서 일어나 공주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런데 말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자를 찾아 화장실 문을 푹푹 두드리며 외쳤다.

“말자야! 너 여기 있니?”

그러다 동추는 문득 깨달았다.

‘아 참! 그렇지! 말자는 화장실 사용 안 하지!’

동추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말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말자,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가베! 하여튼 말 하나는 되게 안 들어!’

그런데 어디선가 ‘카뎡카뎡’하며 메신저 알람이 울렸다. 열어보니 말자의 음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

안녕! 멋있고 세련된 우리 서방님! 아 아 아니 우리 주인님!

눈 뜨자마자 짬짜면부터 찾는 먹방 돼지님! 헤헤헤... 맞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럴 줄 알고 짬뽕 국물이랑 짜장면 소스 한 솔 끓여 놓았으니 면만 삶아, 비벼 먹기만 하셔! 그리고 우리 보라 양 좋아하는 매콤한 닭발 소스도 준비해 두었으니 닭발만 <쿵심>에서 주문해서 버무려 먹으면 돼! 알겠지?

나는 지금 남북통일 고속도로를 따라 신나게 북으로 가는 중이야. 물론 우리 귀요미 부가티를

타고 가는 거지. 주인님께는 살짝 미안하지만 당분간 내가 장기 렌터해서 끌고 다닐게 헤헤헤. 하지만 그냥 탄다는 거는 절대 아냐!

우리 집 천장에 보면 내가 표시해 둔 게 보일 거야. 그곳에 찻값을 넣어 두었지.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고? 걱정하지 마! 부정한 돈은 아니니까. 사실 우리 동추님이 장이수에게 착복당한 돈과 내가 우리 이반 헌트 주인님에게서 물려받은 금액이야. 대충 30만 유로, 40만 달러, 10만 엔, 4만 파운드, 2만 프랑, 7천 피지 달러, 9만 페소, 18만 동썸 될 거야. 그 정도 액수면 요즈음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 급매물로 나온 쌍문동 타워 펠리컨 32평형 정도는 구매 가능할 거야.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 보라 아가씨와 알콩달콩 아들딸 낳고 샘나게 잘 살기 바래!

나는 어디 가냐고?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아니라 <버려진 로봇들의 도시> 블라디로보스틱으로 가려고 해! 이제 주인 섬기는 짓은 그만하려고! 나도 이제 험심한 로봇 남친 만나서 사랑도 하고 아들딸 낳아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지?

그리고 혹시 길에서나 공공 화장실에서 장이수 만나면 절대로 내가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 그거 하나만 지키면 만사형통! 알겠지?

얼빡하지만 그래도 매력남 우리 동추 주인님! 그동안 무척 행복했어! 고맙고 잊지 않을게! 아! 차차차차! 우씨! 이놈의 슈퍼카는 다 좋은데 기름을 너무 잡아먹어! 햐! 안 되겠다!

미안해 주인님! 근처 폐업된 주유소 찾으러 가야겠다! 안용!

\*\*\*\*\*

엔딩 자막

꽤 심상치 않은 날들이 흐른 이후,

박대기 기자는 유엔 산하 <올해를 빛낸 용감한 기자상>을 받기 위해 UN 본사가 있는 소말리아로 출국했다.

오동추는 신보라와 결혼하고 클래식 카레이서로 F1 과테말라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김말자는 험심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로봇을 만나 결혼했다. 신랑 이름은 차언우.

마동식은 모든 죄가 인정되어 444년 형을 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갇혔으나, 땅굴을 뚫고 어느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탈출하여 멕시코 바닷가 마을 지와타네호에서 어부로, 목소리 좋은 흑인 할아버지와 함께 숨어 산다.

장이수는 과거를 깨끗이 청산 한 척, <코리안드림국제결혼> 결정사를 운영한다.

<끝>